



서울大同會報

2003년 3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李世震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그래픽디자인 김병석

관상추추

서울대학교총동창회보가 이번 호로 3백호를 기록하게 되었다. 1969년에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창설되었으나 동창들의 호응이 적어 6대 閔復基회장 때인 1976년에 서울대학교총동창회보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번 호로 어언 27년이 되었고, 창간호는 격월간으로 4천부를 발행하는데 그쳤으나 월간으로 바뀌어 3백호는 오프라인으로 10만부, 온라인으로 8만부를 발간하게 되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발간 면수도 16면에서 32면으로, 배로 증면되었다.

돌아켜보면 서울대학교는 초기에는 일종의 연립대학의 성격을 가졌고 동창회도 단과대학별동창회가 창설되어 거의 연대감을 가지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단과대학동창회의 연립체 격이었던 서울대학교총동창회를 창립해 동창회간의 유대를 도모했던 것이다.

총동창회는 본부는 열심히 활동했으나 홍보부족으로 회원들은 그 존재의의를 잘 몰랐고 회비를 이종으로 부담한다는 불평만 쌓여 있었다. 이에 총동창회의 사업을 알리고 동창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동창회보를 창간하게 되었다. 창간 당시에는 李錫範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욕이 컸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란 쉽지 않아 흑백으로 4천부를 격월간으로 발간

紙齡 300號

하는데 그쳤다. 처음에는 지부를 통해 주로 배부했는데 단과대학동창회에서는 배부까지 잘 해주지 않는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동안 동창회 회장단의 높은 관심과 논설위원들과 편집기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이제는 국내 굴지의 월간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른 사립대학동창회보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서울대총동창회보가 이제는 지면 양에서나 발행 부수에 있어 최대의 회보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창회는 동창회보의 지령 3백호를 기념해, PDF방식의 CD롬 두 장에 창간호부터 3백호까지를 수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축쇄판 발간도 논의되었으나 개편 검색이 가능한 PDF방식의 CD롬 제작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동창회보를 애독해주신 회원님도 이를 전부 보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에 CD롬으로의 발간은 기록 보관상의 애로를 타개할 뿐만 아니라 회원개인의 기록 검색에도 유익해 동창들의 백과사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동창회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사랑이 가장 큰 밑받침이 되었다. 회원들의 관심과 후원이 거듭되어 회보가 5백호, 1천호로 부강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유명을 달리한 회장단과 논설위원들의 명복을 빈다. (哲)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鄭珉鎬 廣告부장 金千鶴

언필칭 국제화시대다.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나 「국가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쟁력이 무엇인가. 국제분업화 시대에 1등과 2등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국제적 안목과 노하우가 있는 숙련공이 빚은 작품은 수준부터가 다르다. 그런 일류 제품이라야 경쟁력이 있다. 비싸게 팔린다.

상품만이 아니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각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 인재를 끌고 오 조직적으로 키우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세분화된 이런 전문성의 총합이 바로 국력이고 국가경쟁력이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만 해도 아마추어 수준의 경험 없는 종사자들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어이없는 대형 참사를 몰아왔다. 선진국처럼 고도로 훈련된 전문 프로 요원들이 필요한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었겠는가. 이렇고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 사회분위기에도 있다. 국가차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능력과 경륜을 존중



학력 파괴 경륜 파괴



南仲九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
도 안 된다.

하고 대접해주는 사회분 위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최근 들어 학력파괴나 경륜파괴가 무슨 자랑인 듯 여기는 이상한 풍조마

저 없지 않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변화도 필요하고 개혁도 좋지만 어찌다가 「일류」에 대한 거부감이, 그것도 일부에서 집단으로 일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

「일류」를 존중하지는 못 할지언정 끌어내리거나 따돌리고 깔아서는 말이 안 된다. 구태여 일류가 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교육 인재 경륜 할 것 없이 하향평준화가 제도화되고 있는 마당에 당장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란 무리다. 일각에서 말하는 「평등」만해도 헌법 前文이 강조하듯 「기회균등」이어야지 「산술적 평등」이라면 문제가 있다.

과격이나 아마추어리즘은 때론 신선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 생명이 걸린 국정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난도의 국가경영능력과 경륜이 요구되는 막중한 프로의 영역이다.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국가인재를 골라 써야 옳다. 아마추어 수준의 접근은 곤란하다. 무슨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유능하고 행복한 아이로 기르기

얼마전 한 유치반 어린이가 자기는 내일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유인즉 부모님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하는데 유치원에서는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 초등학교 과정을 오후 5시까지 가르쳐주는 보습학원에 다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부모의 요구에 순응했다. 이보다 더 가슴을 답답하게 한 일은 만3세 영아반에 입학하게 된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데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조급증을 내는 것일까? 작년인가 TV에 나온 한 한글 학습지 광고가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찡찡 내려앉게 했다. 광고의 내용은 이제 걸음마를 막 댄 아이가 신문에 써 있는 한글을 즐즐 읽고 그 때 나오는 이야기 「세 살도 너무 늦다」는 학습지 광고였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참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 눈에 우리 아이는? 그 광고에 나오는 아이보다 크면서도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모자란 아이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문자교육의 기준을 유치원 취원 가능한 유아도 아닌 영아수준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광고의 문제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더 빨리, 더 많이」가 마치 正道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가 모든 사물에 대해 스스로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 부모들! 아이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잘 해야한다고 여기는, 아이가 만능임을 원하는 부모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은 유아기 자녀교육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부모뿐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공론화돼 있으면서 유아기의 아이들이 잘못 되면 우리 모두는 그 부모들의 과욕과 무지 탓이라고 부모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그러

나 나는 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즉, 각종 학습지 광고, TV광고, 학교교육 모든 것이 부모들의 조급증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교육부에서 「유능하고 행복한 아이로 기르기」라는 내용의 부모 교육자료가 배부됐다. 그 내용은 조기교육 특히 조기 영어교육의 광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병들고 지쳐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을 유능하고 행복한 어린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이런 내용들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만 알려질게 아니라 TV나 라디오 등 공중파를 통해 우리 나라 모든 부모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각종 학습지 회사나 유아 영어 학원 등 학원가에서는 많이 불편해하겠지만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각 가정, 그 부모의 책임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교육 관계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廉明順

(78년 家政大卒)
꿈나라유치원 원장

건강을 지킵시다

火病엔 국화·민들레차가 특효

봄날은 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 못한 것 같다.

한방에서 봄에 속하는 것은 푸른 나무이고, 장부로는 간과 담인데 간은 노여움을 주관하는 장기다. 과다한 욕구, 남과의 전쟁, 타인과의 부딪침에서 오는 개인적인 울화도 간의 병이 된다.

사람의 감정에는 기쁨, 노여움, 걱정, 사색, 슬픔, 놀람, 공포가 있는데 이 중 노여움이 가장 해로운 것이다. 나무는 흙을 이기는 바 간화(목)는 위와 장(토)을 공격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관직으로 말하면 간은 장군에 해당하는데, 담의 결단력의 도움을 받아 용감성을 발휘한다. 하지만 자주 노하고 좌절감, 의욕상실, 허무감에 빠지면 그 용감성과 담대함을 잃게 되고 간경락에 연결된 음낭이 수축하며 근육과 뼈, 관절 모두 약해진다.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급기야 신장까지 상하게 되어 정력이 일찍 쇠하고, 봄에 중풍으로 사지마비가 오기도 하는데, 이 때문이다.

간의 성질은 쉽게 성을 내고, 곧 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심장의 화병은 중병인 경우가 많다. 오행 속성상 목·생·화, 즉 나무가 타면 불이 되는 것이니, 자주 분노하면 나중에는 심장을 해쳐 화병이 된다.

춘절엔 일찍 자고 이른 아침 일어나 동쪽을 보고 앉아 맑은 공기를 깊고 크게 한번 들이마신 다음 열 번을 세고 난 후 내쉬기를 아홉 번 반복하면 화를 없애고 간장을 수양하는 법이



李承夏(78년 藥大卒)
이승하한의원 원장

된다. 공원을 유유히 산책하며, 겨울동안 품었던 뜻을 세우게 하고, 줄지연정 빼앗는 일은 없도록 하고, 남을 벌하기보다 칭찬하도록 하며, 매사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양기의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천지의 기에 서로 맞게 된다고 옛 의서에 쓰여 있다. 또한 음식도 중요하니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나물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다.

밤낮이 없는 현대화된 시설에 갇혀 사육되다 죽는, 그래서 거의 미쳐버린 닭과 계란, 소와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동물들의 분노와 화를 고스란히 먹게 된다고 「화」의 저자 틱낫한은 말한다.

고량 진미와 지나친 음주는 간에 열과 담을 만들어 정신도 흐려지고 성을 잘 내게 되는 것이다. 결명자, 차전자, 인진쑥은 간열을 내리는데 유효하고, 간의 기를 풀어주는 데는 시호, 향부자, 목향 등을 쓴다. 숙취에는 콩나물국, 북어국, 오이즙, 침차가 좋고, 화가 날 때는 국화나 민들레차를 시원하게 마셔도 효험이 있다.

(연락처 : 051-506-5577~8)

추억의窓

항상 몰려다닌 불문과 「5분의 5」

눈덮인 북한산서 길 잃었던 추억도

金海貞(60년 文理大卒)前민국일보 기자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56년에 입학해 60년 봄에 졸업을 했으니 우리의 학창시절은 데모에 휩쓸릴 시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궁핍한 시절이었다. 인쇄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 읽기도 어려운 프린트를 교재 삼아 학업을 이어가던 시절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도해주시던 교수진은 명실공히 최고였다. 대학중의 대학이라며 우리를 불문과에 지원토록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던 모습은 여전히 눈에 선하다. 웃음 넘치는 강의로 타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金鵬九(당시 이화여고 강사도 겸임)·吳鉉堦교수님, 후에 총장까지 지내신 權重輝교수님, 주옥같은 수필들을 남기시고 너무 일찍 타계하신 故 李敷河교수님,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최근 수필집을 개정 출판하신 皮千得교수님. 모든 분들에 대한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도 헛되지 입학할 때의 거창하던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황금같은 학창시절도 아쉽게 흘러갔다. 불문과는 다른 과와 달리 여학생이 많은 편이었는데 도중에 휴학을 한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몰려다녔다. 다수는 용감하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는지, 5명이 교정 곳곳으로, 주변 다방으로 몰려다녔다. 정문을 나서 좌우로 뻗은 개천 옆 길을 일렬종대가 아닌 일렬횡대로 조잘거리며 지날 때면 남학생들이 한 권으로 비껴 가기도 했다. 그래서 불은 별명이 5분의 5. 이 친구들과는 79년부터 20년 이상 매주 등산을 함께 하고 있다.

남자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아마 2학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어렵듯이 기억을 한다. 갑자기 鄭智榮(모교 불문과 명예교수)동문이 등산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 등산장비가 있을 리 만무했던 시절이었고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하얗게 뒤덮인 북한산을 오르기는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는 상황에

서 무턱대고 계곡을 타고 내려왔고 다행히 아무런 사고없이 산행을 마쳤다. 한 명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청춘의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추억이다.

정겨운 시절도 잠시, 교정을 떠나 어느덧 반세기의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누군가 뜬금 없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눈으로 인적 끊긴 산골 오두막에서 깊이 묻은 동치미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책 몇 권을 끼고 전화도, 신문도 세속과 인연을 끊고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어느 교수가 파리지도를 펼쳐놓고 점을 찍어가며 가고 싶은 곳을 따라 상상의 날개를 폈다는데, 불현듯 그곳으로 날아가 석 달만 머무르며 문화의 고운 때를 켜켜이 벗겨 보면서 감탄하고 싶다」고.

문득 金鵬九선생님께서 강의중에 들려주신 글귀가 떠오른다. 「힘든 노역 끝에 지게꾼이 들이키는 한 사발의 막걸리나 부자들의 비싼 포도주 한잔의 행복의 질이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여기에 皮千得선생님이 즐겨 인용한 陶淵明의 시 한 구절을 읊조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않을까.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젊어서부터 속세에 맞는 바 없고 성품은 본래 산을 사랑하였다. 잘못 도시 속에 빠져 30년이 흘러가 버렸다)」



57년 동기들과 창경원에서(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 필자).



창간호 (76. 4. 24)



2호 (76. 6. 24)



20호 (79. 7. 1)



21호 (79. 9. 1)



24호 (80. 3. 1)

동창회보 지령 300호 기념

회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서울대인 염원 담긴 회보 발간 결정

본회는 1976년 3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6대 閔復基회장을 비롯해 李錫範상임부회장, 元容奭·崔主鎬부회장, 李聖秀감사, 鄭鳴秀사무처장, 모교 尹天柱총장, 丁炳然학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창회 홍보와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결속과 유대강화를 위해 동창회보를 발간기로 하고, 회보 발간을 위한 제반사항을 사무처에 일괄 위임했다.

3월 25일 李錫範상임부회장, 모교 尹天柱총장, 金榮國대학신문 주간, 金哲洙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보 창간 자문회의가 열렸고, 본회 사무처는 3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회보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錫範상임부회장, 鄭鳴秀사무처장, 모교 金榮國대학신문 주간, 李壽禧대학신문 부주간, 韓宗秀낙산회보 편집자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와 동창회를 하나로 묶어줄 참신한 내용으로 창간호를 꾸미기로 결정했다.

1976년 4월 24일 첫 선을 보이다

본회는 1976년 4월 13일 문공부에 등록(바-618호)을 마치고, 4월 24일 정기총회를 맞아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를 창간, 4천부를 배포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총16면으로 겉표지는 아티지를 사용하고 내지는 신문용지로 인쇄했다. 또 영문, 국문, 한문을 혼

용했으며, 「冠岳周遊」「동창회日誌」「回顧記」「單大저널」「千字提言」「모교소식」등으로 꾸며졌다.

창간 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은 閔復基동창회장이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편집위원 5명 위촉

1976년 5월 12일 열린 조찬회에서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규정」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본회 상임부회장인 李錫範동문, 모교 대학신문 주간인 金榮國교수가 선정됐다. 또 위촉위원으로 신문대학원동창회 文道彬회장, 자연대 趙完主학장, 법대 金哲洙교수가 선임됐다.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회 상임부회장이 당연직 편집위원장이 되고, 사무처장이 편집위원회 주간이 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동창회보 제2호 편집위원회에서 회보제작 방향과 편집, 인쇄, 배포 등 제반문제를 광범위하게 토의했으며, 차후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갖고 편집방향과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발행일 1일로 변경 표지 흑백으로 주춤

1977년 5월 4일 본회 편집위원으로 모교 대학신문 주간인 金彩潤교수, 한국일보 尹宗鉉논설위원을 위촉하고, 이어 7월 6일 방송통신대 李應百학장을 편집위원으로 선임해 편집위원회를 보강했다.

1978년 12월 16일 열린 편집위원회회에서 격월로 발간해온 본보의 발행일을 24일에서 매월수달 1일로 변경했다.

1979년 5월 31일 李錫範상임부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6월 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元容奭부회장을 상임부회장에 선임하고 규정에 따라 당연직 편집위원장직도 맡게 됐다.

1979년 7월 1일자(제20호)부터 재정문제로 표지를 흑백으로 바꾸고, 9월 1일자(제21호)부터 발행면수를 12면으로 축소했다. 한편 8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보 1980년 3월 1일자(제24호)부터 월간으로 발행키로 의결했다.

「월간」의 꿈 이뤄 다양한 내용 선보여

1980년 3월 29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元容奭상임부회장이 선출됐다. 이로써 동창회보 발행인 겸 편집인에 元容奭회장이 선정됐으며, 4월 13일자로 문공부에 월간등록(라-2448호)을 필하고 드디어 월간화의 꿈을 실현했다.

이어 1981년 8월 12일 공식중인 상임부회장에 崔主鎬부회장을 선임함으로써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을 겸하게 했다.

1982년 3월 13일 제9대 회장에 金堉成동문이 선출됐으며, 18일 회장단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에 崔主鎬부회장, 상임부회장에 李聖秀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에 맞춰 1982년 5월 1일자(제50호) 회보부터 표지를 칼라로 하고 지면도 16면으로 늘렸으며, 「서울대 정신」「내가 본 세계의 대학」「직장지부 탐방」등을 신설해 내용도 한층 다채롭게 꾸몄다.

발행부수 4만부 돌파 20면으로 증면

1984년 3월 24일 본회 제10대 회장에 崔主鎬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상임부회장에 유임된 李聖秀부회장이 1986년 9월 13일 문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자(제103호)로 본보 편집인의 자리를 맡게 됐다.

이즈음 동창회보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본보 1987년 1월 1일자(제106호)부터 20면으로 증면하고 발행부수도 4만여 부로 늘렸다.

또 지면을 대폭 색신하여 「명예교수 칼럼」「건강교실」「취미생활 코너」「신간안내」「가정한담」을 신설하는 등 동문을 위한, 동문의 신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1991년 10월 8일 본회 상임부회장에 선임된 張翼龍동문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보 편집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12월 20일자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1992년 1월 1일자(제166호)부터 5월 1일자(제170호)까지 편집인으로 활약했다.

이어 1992년 4월 17일 상임부회장에 새로 선임된 鄭宗澤동문이 1993년 9월 1일자(제186호)부터 2000년 2월 15일자(제263호)까지 본보 편집인 겸 편집위원장을 맡아 회보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현직 언론인 영입 재미동창회보 창간

본회 崔主鎬회장은 1992년 9월 5일 동창회 회칙 제14조 및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일보 孫一根백상기념관장, KBS 李清洙해설위원장, 조선일보 崔靑林편집국장을 본회 편집위원으로 영입,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회보의 틀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재미 서울대재단 金永基이사장, 재미서울대동창회 朴允洙동창회장 등 LA지역 동문들이 힘을 모아 1993년 6월 15일자로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창간호를 4천부 제작, 미주 지역 동문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재미 동창회보는 본회에서 동창회보의 필름을 현지에서 공수하면 LA에서 이를 받아 미주 현지 소식과 동문들의 동정을 첨부, 발행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편집위원 증원하고 논설위원으로 변경

1994년 3월 26일 본회 제15대 동창회장에 선출된 金在淳前국회의장은 발행인으로서 5월 1일자(제194호)부터 2002년 3월 15일자(제288호)까지 봉직했다. (5면에 계속)

미술작품

朴 沆 律 作



「새벽」,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60.6cm, 2002.

〈작가약력〉

- ▲74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77~02년 개인전 2회
- ▲81~90년 「오늘의 작가」전
- ▲84~89년 「12분의 1」전
- ▲92년 「공백레종 드 서울」전
- ▲94년 동학혁명 1백주년 기념전
- ▲95년 서울 관화미술제
- ▲97년 구상과 추상의 만남, 조화전
- ▲00년 한국·불가리아 수교 10주년전
- ▲01년 「손끝으로 보는 조각」전
- ▲02년 대구 아트 엑스포 2002
- ▲현재 세종대 예체능대학 교수



50호 (82. 5. 1)



106호 (87. 1. 1)

(4면에 이어)

한편 1994년 4월 18일 본회 사무처장에李世震동문이 임명되면서 본보 편집주간의 겸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보는 회보」 「기다려지는 회보」 「철하는 회보」로 발행 목적을 잡고, 보다 질을 높이고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그 첫걸음으로 1994년 5월 16일 본보 편집위원으로 모교와 언론계에 봉직하고 있는 동문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상임 편집위원인 모교 사회대 金榮國교수, 한국일보 孫一根이사, 모교 법대 金哲洙교수, 조선일보 崔靑林편집국장장을 포함, 17명의 편집위원들이 막강한 팀워크를 갖게 됐다.

이날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KBS 朴應七해설위원(상임), 한국방송위원회 金昌悅위원장, 모교 자연대 朴世熙교수, 서울신문 李東和이사, 한국프레스센터 李炯均전무, 중앙일보 宋鎮赫수석논설위원, MBC 李年憲기획조정실장, 경향신문 洪性萬편집국장, 연합통신 丘月煥지방국장, 동아일보 朴紀正사회부장, 한국일보 李成俊편집국장, SBS 吳効鎭편성이사, 시사저널 安炳璆편집주간(이상 비상임).

한편 본회는 「편집위원」을 「논설위원」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면 가로쓰기 도입

마이크로필름 제작·보관

1995년 2월 1일자(제203호) 회보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했으며, 용지를 중직지로 변경해 28면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또 시사저널 安炳璆주필에게 편집 및 디자인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구하고, 한국프레스센터 李炯均전무로부터 기사 및 제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전문화,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6월 10일 모교 도서관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얻어 본보 창간호부터 2백호까지 마이크로필름(35mm)을 제작,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같은 해 12월 9일 SBS 吳効鎭편성이사 후임인 林炯斗제작

편성본부장과 덕성여대 李元馥교수를 본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논설위원이 총 18명으로 증원됐다.

1997년 1월 10일 본보 李炯均논설위원과 朴應七논설위원 후임인 KBS 金仁圭취재주간을 상임논설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월 11일 朴紀正논설위원 후임으로 동아일보 南仲九논설위원 실장을 선임했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동창회 관련 행사들을 더욱 신속하고 자세히 전달하고자 1997년 2월 15일자(제227호)부터 발행일자를 1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신문용지 24면 체제

논설위원 26명 참여

1998년 5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본보 편집회의에서 6월 15일자(제243호)부터 기존의 내지(중직지) 16면과 별지(신문용지 46.6g) 8면의 이중체제에서 신문용지(54g) 24면의 일괄체제로 전환,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본보 金仁圭논설위원이 KBS 부산방송총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KBS 柳根榮보도국장이 논설위원으로 활약했으며, 1999년 9월 1일자로 비상임 논설위원에 서울경제신문 金鎮銅주필, 매일경제신문 朴時龍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朴聖姬논설위원이 합류했다.

또 본보 상임논설위원인 孫一根동문이 2000년 4월 10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편집인을 겸하게 됐으며, 朴世熙·朴聖姬논설위원과 SBS 安國正제작본부장이 상임논설위원으로 추대됐다.

더불어 문화일보 金好俊편집국장,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鎭교수, 대한매일 李慶衡편집국장, 매일경제신문 金鍾勳출판국장, 연합뉴스 徐玉植편집국장, 한겨레신문 高永才편집위원장, MBC 嚴基永보도본부장, 조선일보 姜天錫편집국장을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추가 영입했다.

이로써 본보 제작에 참여하는 논설위원은 총 26명(상임 7명, 비상임 19명)으로 증원됐다.

지면 32면으로 확대 불우이웃 성금 전달

본회는 1999년 연말부터 송년편집회의 개최시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SBS(1999년 12월 8일), 중앙일보(2000년 12월 12일), 동아일보(2001년 12월 11일), KBS(2002년 12월 16일) 등 각 언론사에 전달해왔다.

한편 2001년 3월 15일자(제276호)부터 본보 지면을 24면에서 32면으로 확대, 발행하고 모교의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70여 개 연구소 등을 보다 심도 있게 홍보하기 위해 모교소식면을 늘렸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의 논단을 소개하는 칼럼을 신설해 더욱 알찬 내용이 되도록 했다.

홈페이지 통해

동창회보 열람

본회는 2001년도 사업 목표인 「회부의 Digital화」 「Cyber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주)아이러브스쿨과 업무제휴를 맺어, 2001년 5월 26일 e-mail을 통해 8만3천여 명의 동문에게 Digital 동창회보(e-bulletin) 5월호를 발송했다.

이로써 본회는 매월 인쇄매체로서의 동창회보를 국내판 8만8천부, 미주판 7천부를 포함해 총 18만여 명의 동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동창회와 모교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1998년 12월 잠시 운용되었던 홈페이지(www.snua.or.kr)가 2001년 7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면서 연회비 e-mail 결제시스템도 구축됐으며, 2001년 5월 15일자(제278호)부터 2003년 2월 15일자(제299호)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서울대 가족 의식」 고취 새로운 도약 기대돼

본보 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격월간으로 낼 수밖에 없었고, 또 한때는 표지를 흑백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월간발행을 하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지면을 16면에서 12면으로 줄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4천부를 발간했던 창간호부터 9만여 부를 인쇄하고 있는 최근호에 이르기까지 본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애초에 단대별로 흩어져 있던 동문들에게 「서울대 가족 의식」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이에 크게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보는 여러 해에 걸쳐서 해외지부 및 지방지부의 조직강화를 역설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서울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진력해왔다.

기사 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써왔고, 각 단과대학(원), 기과별, 단과과정 동창회의 소식은 물론 해외, 지방, 직장지부의 소식도 다양하게 게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문 소개와 기사 발굴에 있어서 남녀, 老壯靑의 동문을 고루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5일 본회 제19대 회장에 林光洙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동문들의 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고를 기고하거나 동정 사향을 일러오는 동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보 지령 3백호를 계기로 동창회의 지난날과 오늘을 회보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동창회와 회보 제작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새롭고 알찬 기



223호 (96. 10. 1)



243호 (98. 6. 15)



276호 (01. 3. 15)

획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20만 서울대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해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다.

癸未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1일 (金)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3월 21일 (金)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내 용 : ①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신입회원 환영
③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 사업계획 보고
④ 동창회보 PDF CD-ROM 시연회
⑤ 기타 안전 심의
- ◆회 비 : 3만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3차·관악회 86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전 오후 5시부터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178호 (93. 1. 1)



203호 (95. 2. 1)

Noblesse

Oblige

경기도 포천군林志俊치과공중보건의

스마일 복지재단 설립 위해 ‘고군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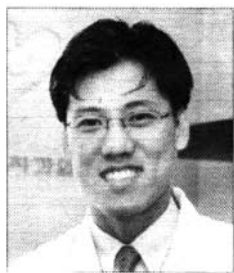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함께」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남보다 더 잘 살고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악안면 기형 아동 등 구강진료가 절실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년 전부터 가장 많은 땀과 노력을 쏟은林志俊(97년 齒大卒·경기도 포천군 공중보건의)사업·추진본부장이 그 주인공.

특히 지난 2월 22일 63빌딩 체리홀에서 역사적인(?) 스마일 복지재단(www.smilefund.org) 창립식이 거행됐으며, 이날 저소득장애인 10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전통휠체어를 증정하는 순서도 아울러 가졌다. 일반 후원단체와는 달리 스마일 복지재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순수 치과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사실 이러한 일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잘되는 것보다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전체가 잘되면 더 좋잖아요. 사람들에게林志俊이라고 했을 때 떼뻑할지 몰라도, 「치과의사」林志俊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상대방이 치과의사에 대한 편견이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 역시 떼뻑하지 못하잖아요」

3년 전 林동문은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군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 「사랑나누기 치과의사모임」을 결성했었다. 젊은 공보의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교수들은 모임을 이끌고, 일반 치과의사들로부터 기부 받아 운영하기로 했지만, 모여지는



자금이 없어 노인 무료틀니 사업 등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 「제 목적은 항상 우리들 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무료틀니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해 그만뒀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개원의들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면 토요일 오후 3~4시까지 진료를 하고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그리고 일요일에 무료 진료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한달 내내 이렇게 열심히 진료를 하고도 시간을 내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구나 하며 뿌듯해할지 모르죠. 하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일요일날 쉴 걸 애써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야 하고, 또 한 달에 몇 번의 진료밖에 못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는커녕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겨다줄 뿐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봉사할거면 그 시간 동안 별 돈을 기부해서 그 돈을 집중적으로 전임 의사를 고용하거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치과 진료센터를 지어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쏟아 붓는다면 환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의사 자신에게는 더 큰 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 기업체, 후원단체, 일반인들이 아닌 우리 치과의사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林志俊동문의 어릴 적 꿈은 의사와는

거리가 먼 과학자였다. 특히 그는 화공과를 지원하려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전문직이면서도 안전한(?) 치과대학이었다. 예과 때는 화학 등 그가 좋아하는 기초과목을 배워 별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성에 맞지 않아 한동안 방황도 많이 했었다. 林동문이 치과의사로서 처음 보람을 느꼈던 것은 공중보건의로 지방에 내려가 무료틀니 사업을 하면서부터. 특히 구강암에 걸린 환자가 얼굴의 3분의 1을 들어내야할 때는 가슴이 찢어졌다. 수술비도 없어 치료조차 못 받는 환자를 보면 열 받기까지 했었다고. 그 때부터 林동문은 「전체」가 많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스마일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조금은 걱정된다고 하는 林동문은 「사랑나누기 모임에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진료하면서 가장 슬펐던 것이 치과의사들로부터 기금을 받아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었는데, 대부분 후원사 및 단체로부터 기부 받아 「함께 참여하자」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현재의 재단사업도 남이

자금을 대고 우리는 가서 진료만 한다면 결국 우리 이름을 걸고 하는 실질적인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그는 또 스마일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치료 대상자인 장애인 스스로가 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종 목적은 장애인들이 구강진료의 중요성을 이슈화시켜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그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꿈이라고.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이유에 대해 林동문은 이렇게 대답한다. 「매스컴에서는 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의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배웠고, 저 역시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배웠지 돈 버는 기술을 배운 건 아닙니다. 치과의사로서 해야 할 10가지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할 거 하는 사람이 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의사가 의사다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을 뿐」이라고.

(表)



동료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함.



오스트리아 지부

친선골프·음악회 등으로 우의와 친목 다져

글 : 金泳仁(79년工大卒·IAEA 원자력발전국 서기관)총무

음악과 예술의 나라이자 스키강국인 인구 8백만의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 경제적으로 우등생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는 하이드,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이 활동하던 곳으로서, 음악의 도시답게 비단결 같은 음악이 거리의 악사를 통해 연주되고 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처럼 모교 동문들도 반세기 가까이 모범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모교의 자긍심을 물론 한민족의 기개를 떨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부는 93년 8월 당시 최



2003년 신년모임.

주최회장, 徐廷和·鄭宗澤부회장 등 총동창회 회장단의 방문을 계기로 설립됐으며, 李景鍵(63년工大卒·Tomi Tech 사장)동문이 초대회장으로 동창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부 동창회 설립 훨씬 이전부터 동문들의 활동은 시작됐다. 李誠載(51년音大卒·모교 음대 명예교수)·申秀貞(63년音大卒·모교 음대 교수)·趙誠振(71년文理大卒·세종문화회관 예술감독)동문 등이 60·70년대 비엔나로 유학을 와 터를 다졌으며 현재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등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동문들로는 비교문학을 전공한 李相景(57년文理大卒·前비엔나대 교수)동문, Voest-Alpine 서울지사장을 역임한 金明鎭(60년工大卒)동문, 약국을 운영하는 朴富植(67년藥大卒)동문, 河惠淑(69년音大卒)동문, 개인사업

을 하는 任昌老(84년社會大卒)동문,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蔡景主(85년音大卒)·韓京嬪(82년音大入)동문 등이 있다. 또 UN에서 종사했던 동문으로는 故 南正祐(55년工大卒)·趙英麟(53년文理大入)동문 등이 있다.

매년 신년회와 송년회, 친선골프 모임 등을 통해 동문들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94년 말 당시 駐오스트리아 대사 李時榮(59년文理大卒·전주대 총장)동문의 도움으로 대사관에서 동문들로 구성된 음악회를 열어 친목 도모의 장을 이루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사를 지낸 李承坤(60년文理大卒)·崔尙德(65년文理大卒)·潘基文(70년文理大卒)동문, 최근에는 공사로 재직중인 鄭海文(76년社會大卒)동문 등이 모임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96년 4월 IAEA 원자력발전국장인 全豐一(66년工大卒)동문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헌신적인 봉사의 열정을 쏟고 있다. 全회장은 94년 2월 한국인 최초로 IAEA의 국장 보직을 받았으며, UN 한인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어 UN에서 종사하고 있는 40여 명의 한국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94년 全豐一회장이 IAEA에 진출한

이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동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 오스



全豐一 회장

트리아 지부의 동문은 30여 명으로, 駐오스트리아 대사관 직원 9명, IAEA 등 국제기구에 8명이 있으며 나머지 동문들은 개인사업과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부는 2000년 총동창회로부터 해외우수지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동문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부의 역사가 아직 짧고 동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외교 및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음악 등 다방면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동창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오스트리아 지부의 역사와 전통을 착실히 쌓아나가도록 동문들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국어교육과동창회

추모문집·수필집·논저 통해 동문 참여 유도

글 : 朴甲洙(58년師大卒·모교 명예교수)회장



朴甲洙 회장

국어교육과 동창회는 매년 신년하례식을 가지고 가을 나들이를 할 정도로 사랑과 우의가 넘치는 동문들의 모임이다. 회원수는 2003년 2월 현재 약 1천7백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과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동문이 활약하는 곳이 대학이며, 약 1백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동문들은 이렇게 주로 교육 일선에서 국어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장 외에 언론계, 교육행정계, 문학예술계,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자신들의 재능을 드러냄으로써 모교와 과의 이름을 빛내기도 한다. 한 예로 언론계를 보면 全英雨(57년卒)·金光輝(64년卒)·金漢泳(72년卒)·李元君(77년卒)동문 등 많은 동문이 방송계에, 朱燮植(61년卒)·潘永煥(62년卒)·沈揆先(80년卒) 등 역시 많은 동문이 신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와 같은 문인으로서의 활동도 괄목할만하다. 金南祚(51년卒)·柳光烈(56년卒)·丘

仁煥(54년卒)·崔德源(58년卒)·金允植(59년卒)·柳聖圭(59년卒)·金載弘(70년卒)동문 등이 그들이며, 소설가 李文烈씨는 준회원이다. 이 밖에 金南俊(52년卒)前서울시 교육감, 朱燮植 前문화부장관, 徐한샘(69년卒)前국회의원도 과를 빛낸 동문들이다.

동창회에서는 우리를 키워 준 모교와 과에 다소나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장학기금을 마련해 대학 학부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李應百(49년卒·모교 명예교수)동문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鄭英淑(58년卒)동문의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각각 난대장학금과 연지장학금을 내놓고 있다. 난대장학금은 대학원 학생에게, 연지장학금은 여학생에게 주어진다. 이 밖에 모교 명예교수이자 학술원 회원이셨던 故 海巖 金亨奎(36년卒)선생께서 기탁한 장학기금이 있다. 이는 「海巖 학술상」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우수한 국어교육관련 논문을 발표한 동문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동문을 위한 과 단위의 독자적인 학술상을 시상하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밖에 국어교육과동창회는 많은 행사와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연례행사로 매년 1월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새해에 선후배가 처음

으로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누고,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이다. 5월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정년 퇴임한 스승을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가을 나들이를 한다.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 안겨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동문 선배배간 친목을 다지는 것이다.

또한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고 추억 속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작고하신 모교의 스승을 회고하고 그 학덕을 기리기 위해 「작고 스승 추모문집」을 간행하는가 하면, 동문들의 삶의 편린인 수필을 모아 수필집을 간행함으로써 문학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있다.

금년에는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어교육에 대한 논

저를 발간하기로 했다. 논저의 제목은 가칭 「체험적 국어과 교수-학습」으로 정했

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국어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이론서가 아닌, 중·고등학교의 현장 경험을 많이 반영하는 실용적 국어교육론을 간행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게 되고, 현장에 기초한 생생한 국어교육론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국어교육과동창회는 동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다. 힘으로는 학생생활을 회억하는 동기간의 마디가 되고, 종으로는 국어교육이라는 이념을 같이하는 마디의 연결체가 되어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 동문회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해나갈라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게는 과, 모교,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2003년 신년하례회.



국제형사재판소(ICC) 宋相現재판관

“개인의 반인륜 범죄 묵과 않을 것”



지난 2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동문은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宋동문을 만나 ICC에 대한 궁금증과 재판관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소개를.

『2차대전 직후 국가간의 분쟁이 생겼

을 경우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사법 심판으로 해결하자는 뜻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됐죠.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반성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령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상은 국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재판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처벌하기 어렵고 국가간의 분쟁도 소를 제기하는 국가나 피소국가 모두 동의했을 경우에만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한계가 있죠. 이런 논의가 제기된 후 50년 끝에 ICC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 선거 당시 상황은.

『85개 국가에서 43명이 입후보한 치열한 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해야하는데, 1명의 유권자가 18명을 뽑는 연기명 투표였죠. 지역과 성비, 전공 등의 비율을 맞추어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1차 투표 결과 남자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뽑혔고 나머지는 여자 6명이 선출됐지요. 이후 33차에 걸쳐 18명의 재판관이 겨우 선출된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 임기는 몇 년으로 추첨됐는지.

『원칙적으로 임기는 9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재판관들은 3년, 6년, 9년으로 나눠 추첨식으로 임기를 정함으로써 연속성을 피도록 했죠. 저는 3년으로 추첨됐는데, 재선이 된다면 9년의 임기를 더 맡게 됩니다. 참고로 6년과 9년을 추첨한 재판관들은 재선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이 ICC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위상은 어떻게 정립될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美 국방부로서는 현재 80여 개국에 평화유지군을 포함해 주둔군을 배치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이 ICC에 복종하게 된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겠죠. 미국은 지금 각국과 기소면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타협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ICC의 위상이 흔들린다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년 내에 1백20여 개국이 비준하게 되면 미국 없이도 자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ICC를 더 이상 배제할 수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 앞으로 ICC 재판관으로서 포부는.

『ICC가 지향하는 목표는 법을 통한 세계 평화, 인도주의의 실천, 인권옹호 등이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겠죠. 특히 저는 절차법 전문가로서 앞으로 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압력으로부터 초연할 것이며, ICC가 지향하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宋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62년 행정고시와 63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모교 법과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美하버드대 법과대학 교수를 맡고 있다.

〈亨〉

세계보건기구(WHO) 李鍾郁사무총장

“북한에 긴급인도주의 원조 필요”

李鍾郁(76년 醫大卒)동문이 지난 1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사무총장 본선투표에서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기구 선출직 수장에 뽑힌 李동문은 7월 정식 취임, 5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지난 2월 5일 일시 귀국한 李동문을 만나 당선 소감,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선거 과정과 당선 소감은.

『사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맡았다는 책임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입학을 남겨둔 예비대학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총 9명이 출마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WHO에서 20여 년 이상 근무한 내부 인물이라는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내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현상유지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한국인의 국제기구 선출직 당선 의미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 무역기구, 세계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

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들은 대부분 전직 장관 등의 유명인사였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관이 중책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도 가장 말단에서 시작해 총장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 WHO에 발을 디게 된 계기는.

『사실 남다른 높은 이상을 품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취직 차원에서 WHO를 선택하게 됐는데 어느새 20년이 됐습니다. WHO 업무가 적성에 맞았고 매력을 느끼게 된거죠. 첫 근무지인 피지 사무처 등 WHO에서 거치지 않는 업무가 없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사무총장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한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결핵관리국장을 맡을 때부터 결핵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말라리아도 심해 퇴치를 위해 더욱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족으로 북한 아

동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모든 나라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인도주의 원조는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가 돼야 합니다』

— 지난 96년 10월 한국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해.

『백신국장 시절 백신연구소 초대 이사를 지내며 설립에 많은 부분 힘을 보탰습니다. 명실공히 국제연구소로 발돋움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명칭만 국제연구소이고 거의 모든 재정을 정부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보다 재원을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모교 동문들, 특히 젊은 후배들에게 한 마디.

『모교는 각 분야에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이며, 자기 자리에서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책임감과 관용, 포용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李동문은 美하와이대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WHO 피지 한센병 관리책임자·서태평양지역 질병관리국장·예방백신사업국장·세계아동백신운동 사무국장·사무총장 특별대표직·결핵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鎬〉

호서대 뮤지컬학과 朴相鉉교수

화제의 동문

명지대 바둑학과 南治亨교수

성악가 출신 뮤지컬 교수 1호

“끼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 필요”

뮤지컬과 성악으로 대표되는 클래식의 만남은 웬지 어색하다. 이 둘 사이에 넘지 못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성악가 출신으로 국내 뮤지컬학과 교수로 임용돼 주목을 받는 동문이 있다. 3월부터 호서대 벤치전문대학원 뮤지컬학과 주임교수로 강의하는 朴相鉉(89년 음대卒)동문이다. 모교 성악과를 졸업,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7년 남짓 국립합창단에서 활동한 朴동문의 이력에 비춰 보면 눈길이 모아진다. 성악가 출신으로는 뮤지컬학과 1호 교수.

성악을 전공한 朴동문이 뮤지컬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까웠다. 朴동문은 1999년 국립합창단 시절 영국 런던에 공연을 가게 됐다. 런던에 가면 누구에게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할리우드영화 등 전세계 문화상품을 통틀어 전체 흥행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6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떨치고 있었다. 대기표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체념하고 있던 朴동문은 반환된 표를 구입해 가까스로 관람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는 당시의 감동을 「거의 10분마다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완벽성과 감동에 놀랐다」고 회고한다.

이때의 경험은 뮤지컬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귀국 후 朴동문은 뮤지컬과 관련된 음반을 모두 구입해 감상하기도 했다.

기회는 곧 왔다. 2000년 「오페라의 유령」이 국내 인력으로 공연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朴동문은 공연을 사실상 총지휘하는 음악감독에 욕심을 갖고 오디션에 참가했다. 뮤지컬에 관련된 변변한 경력이 없는 朴동문은 그러나 지휘 전공



교수, 교향악단 지휘자 등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발탁됐다. 7개월의 공연은 연일 매진으로 대성공이었고 그는 실력 있는 음악감독으로 떠올랐다.

朴동문은 국립합창단 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뮤지컬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을 돌며 70회 이상 뮤지컬 콘서트를 열었다. 불과 3년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곳곳에서 공연을 함께 하자는 손길이 쇠도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된 것이다. 朴동문은 「최근 2년 사이에 뮤지컬로 진로를 택하는 성악 전공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클래식과 뮤지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봐도 좋다」고 설명한다.

뮤지컬을 만드는 음악감독으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朴동문은 나름의 소망을 품고 있다. 5년 안에 뮤지컬 전용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과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빅4 뮤지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뮤지컬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것.

「전공에 관계없이 끼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뮤지컬에 뛰어들어 달라」는 바람도 잊지 않는다. 〈鎬〉

여류 프로 기사로서 첫 임용

“바둑의 학문화 위해 노력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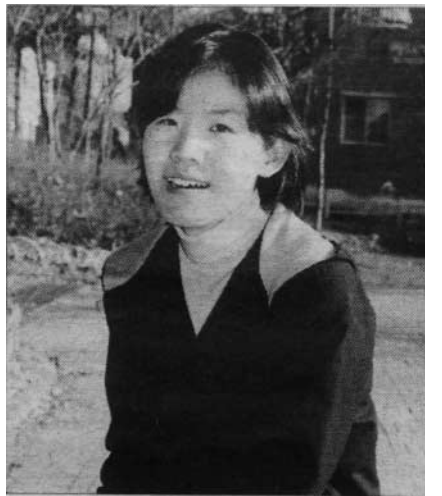
바둑하면 한·중·일 이 세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최강이라 일컬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1980년대 이후부터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바둑으로써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생겼고 이곳에 여성으로서서는 최초로 南治亨(98년 人文大卒)동문이 교수로 부임했다.

이 학과에는 한 학년에 30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학부생 중 20여 명이 프로기사로 입단한 학생들이고 올해 첫 석사학위자를 배출했다.

南동문이 바둑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0살 때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인 15살 때 프로에 입단한 그는 당시에는 어린 나이로 프로에 입문한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였고 여성으로서 첫 프로기사로 데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바둑에 뜻을 두기보다 모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해 영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흔히 프로 기사라고 하면 경쟁이 심한 바둑세계에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를 마친 학력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그 당시 프로 기사로서 서울대에 입학한 그는 화제 거리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영문학이 자신의 적성에도 맞아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된 그는 중세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영문과 교수를 꿈꾸기도 했고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법고시를 준비해 1차에 합격하기도 했다. 영화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독립영화 프로듀서를 맡아 2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 南동문은 이런 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바둑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대학 1학년 때부터 케이블 바둑TV에서 바둑 해설을 시작했으며 199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서 열린 세계 바둑대회에 한국 대표로 초청돼 외국 아마추어 기사들의 대국을 영어로 해설해주는 등 다양한 국제 감각을 쌓아 나갔다.

그는 그동안 대국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매달리다보니 비록 바둑은 초단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공부한 것이 바둑을 학문화시키는데 적임자라고 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것 같으며 앞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공부할 것도 많은 어린 나이에 임용돼 책임이 무겁다고.

앞으로 南동문은 현재 우리 나라에 나와 있는 바둑서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바둑을 좀더 널리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영문판 바둑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다.

흔히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그 역시 바둑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고. 「예전에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들이 과장된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사람 사는 것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亨〉



인천대 金在官 명예교수

부인·2녀1남 모두 자기만의 색깔 지녀

“행복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는 것”

자녀 모두 출가시키고, 손자들의 재물을 보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낼 법도 하지만 7旬을 훌쩍 넘긴 金在官(56년 工大卒·인천대 명예교수)동문과 7旬을 바라보는 그의 부인 梁惠淑(59년 文理大卒·한국공연예술원 원장)동문에겐 황혼이 예나 지금이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독일 유학시절,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1960년대부터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조용히(?) 공을 세운 金在官동문은 퇴직 후에도 국내 경제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며 이를 책으로 옮기는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특히 梁惠淑동문은 3년 전 유네스코 산하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극예술협회 회장에 피선돼 국내 여성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국제 기구 산하의 협회 대표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화여대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기도 했다.

평생을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앞만 보고 매진해온 金동문 부부. 그래서 이들은 한창 부모의 관심 속에 자리야 할 자녀들과 서로 부대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겐 오히려 轉禍爲福이 됐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金동문 부부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듯, 장녀 金仙英(90년 美大卒·영산대 교수)동문, 차녀 金仙宇(2003년 大學院卒·동경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연구원)동문 그리고 무기재료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기술경제정책에 관한 박사 논문을 정리중인 장남 金元俊(99년 大學院卒)동문 역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두 부부가 곁에서 많은 것을 해주진 못했지만, 자신들이 지금껏 모아놓은 책들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申鉉重·金仙宇 동문 내외, 金元俊 동문, 金仙英 동문 내외, 梁惠淑·金在官 동문 내외.

과 레코드판은 모두 아이들 방에 나눠주고, 자녀들은 자연스레 독서와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면을 스스로 터득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모두는 미술에 뛰어난 감각이 있었으며, 장남은 특히 성악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장녀 金仙英동문은 조각을 하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고 말해 소신껏 미대를 진학했으며, 현재 실내환경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차녀 金仙宇동문은 5살도 채 되지 않던 어느 날, 梁동문에게 책 속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림을 가리키며 이를 배우는 고고학을 하고 싶다고 대뜸 말했다. 그녀의 꿈은 이후 변하지 않았으며, 역시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난 남편 申鉉重(80년 美大卒·모교 조각과 교수)동문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기차여행, 실�크로드 여행 등 옛날 문명의

발상지를 추적하며 세계를 돌아다녔다.

金在官동문은 졸업 후 독일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뽑혀 뮌헨공대 및 데마그 철강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부인 梁惠淑동문을 만난 것도 이곳 독일에서였다.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유학 길에 올랐던 梁동문은 은사를 통해 金동문과 알게 되었고, 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金동문에겐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

1964년 12월, 국내 종합제철소 건설 문제로 박정희 대통령내외가 독일을 방문하게 됐다. 12월 12일 밤, 독일 호텔에 서 묵고 있던 육영수 여사는 문득 그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수행원 중 한 사람이 늦은 밤 金在官동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내외께서 서양음식이 입에 맞

지 않아 중국집 만두 두 접시를 호텔 후문으로 가져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만두를 싸서 호텔 후문으로 급히 달려간 金동문은 감사의 뜻으로 육영수 여사로부터 붉은 비단에 금박으로 용 두 마리를 수놓은 침대보를 선물 받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박대통령은 교포 유학생들을 초청했으며, 참석한 金在官동문은 그 답례로 그동안 작성해온 한국 강철산업 발전계획시안을 박대통령에게 전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金동문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안을 만드는 등 우리 나라 철강 공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형 고유모델 승용차 공업정책을 정부에 건의, 자동차 공업의 비약을 주도했다. 특히 1987년 제2차 국민투표를 거쳐 金동문이 제시한 「국가표준 제도」의 헌법 조항이 명문화되기도 했다.

金在官동문이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했다면 부인 梁惠淑동문은 한국의 것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가 서로 융화되는 일에 헌신해왔다. 부친의 서재를 정리하며 독일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그녀가 독문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이지만, 梁동문의 어릴 적 꿈은 극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부친의 책 가운데는 공연예술 잡지가 많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희곡이 발달돼 있는 독일에서 공부한 梁동문은 국내에서 평론가로서 먼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정서에 맞는 공연을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노력했다. 현재 그녀는 탄탄한 대본을 쓸 수 있는 극작가를 양성하는 일과 특히 지금까지의 서구지향적인 연극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는 공연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간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아시아지역 공연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金동문은 끝으로 『지금껏 누구한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감사하게 여겼을 뿐이에요. 자녀들도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 그 속에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表)



위기 의식 없는 서울대 위기

安秉稷(81년 人文大卒)모교 서양사학과 교수

서울대에 부임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뒤돌아보면 그동안 서울대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했다. 강의와 연구를 위한 신축 건물로 캠퍼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기숙사, 체육관 등 후생 복지시설도 적절하게 늘었다. 또 국제교류의 모토를 내건 뒤 교정 여기 저기 외국인 학생들도 종종 눈에 띈다.

그럼에도 그동안 서울대에 대한 필자의 인식을 지배한 것은 서울대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알게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과 비관주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근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우리 나라 교육을 왜곡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재생산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세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를 반영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사회적으로 공감과 설득력을 얻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해괴한 주장이 나오고 서울대에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염려스럽다.

외부의 인식도 우려되지만 위기의식의 더 큰 배경은 내부에 있다. 서울대의 실상은 학문과 교육의 전당이라는 大學像과는 거리가 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지만 그들에게 향학의 열기

는 찾기 어렵다. 입시교육을 거치면서 이미 지적 호기심이 말라버린 학생들은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 대신 일찍부터 고시와 취업준비에 매달린다. 고시 열풍 속에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순수기초학문 분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원 진학이 줄어 학문후속세대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울대의 부정적인 실상은 교육 및 연구여건도 포함한다. 그동안 개선의 면이 없지 않지만 기숙사와 도서관과 같은 기본시설조차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기숙사 수용능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고, 도서관의 도서보유량은 세계적 수준과는 아직도 까마득한 격차가 있다. 시설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운영도 문제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단과대학 도서관을 신설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아두어야 할 중앙도서관 도서를 빼내는 것이 서울대의 수준이다.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인 장학금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는 장학금이 갈수록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 대학원중심 대학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서울대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교론 등의 소리가 들려도 분노나 자성은 커녕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로 의연하고 태평스러운 분위기다. 부임할 당시부터 내내 신입생 학생 모집단위 문제로 논란이 반복됐지만 한

번도 서울대 전체가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사실 서울대에는 되는 일이 없다.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대학별, 학과별로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걸들기 일쑤고, 비전과 열성이 없는 심부름고 어설픈 변화의 시도는 불만과 반발만 초래한다. 그럼에도 서울대에는 안 되는 일도 없다. 서울대의 의사결정 구조와 학사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비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이다. 학교 전체에 중요한 핵심사안은 대학본부가 결정하면 끝이고, 일반 교수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야 안다. 반면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해도 될 사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각종 회의가 줄을 잇는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답답한 현실이 서울대만의 잘못은 아니다. 재정과 인사에 대한 총장의 권한이 제한된 서울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육부이다. 권한은 없고 규제와 간섭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울대는 관료제의 희생자이고, 잘못된 우리 나라 교육행정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다. 입시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근래 입학생을 보면 서울대는 이제 더 이상 가장 우수한 학생만이 진학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간판보다 실리를 좇는 근래 대입지원경향이 보여주듯 직업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교육부의 압력으로 채택한 입시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바깥에서 서울대를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칼질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내부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변화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아울러 서울대 개혁의 선결과제는 서울대의 교육과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재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내키지 않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봉급에 관한 한 서울대 교수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강의를 쉬고 국내외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는 6년, 7년이 돼도 한 번 있을까 말까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 개혁의 이름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요구할 것인가?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서울대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을 내건 새 정부가 서울대를 얼마나 배려할지 회의적이다. 그래서 서울대가 추락한다는 위기감은 더 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물

朴永大(92년 美大卒)화가·에세이스트

물을 논하기로 한다. 물론 물은 우리 주변 도처에 있다. 물은 흐르고 고이고 스며들고 넘치고 고요히 떠서 이리저리 흘러 다니다 돌아오는 길을 되풀이한다.

새벽이다. 고요한 새벽에 조용히 눈을 뜨고 밤새 내 몸을 돌아서 고였다 흘러간 물을 생각한다. 일어나 습관적으로 맨 처음 하는 일은 낮을 한번 쓰다듬어보는 것이다. 손에 느껴지는 물기의 감촉으로 내 몸의 상태를 읽는다. 간밤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나. 손끝을 입에 가져가 땀을 맛본다. 식은 땀 맛은 개살구 마냥 시금틸탈하고, 술 먹고 흘린 땀 맛은 알코올 기가 배어있다. 뜨듯한 아랫목에서 産子安하듯 폭 자고 일어나 저절로 눈뜬 새벽녘의 기분 좋은 땀 맛은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럴 때는 대개 이불을 걷어차고 곧바로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간다. 거울을 보니 미간이 반짝반짝하다. 씩 웃는 거울 속의 나를 보고 기분이 좋다. 수도꼭지를 틀면 「쇄쇄」 소리를 내며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나는 「찬물교」 신도처럼 두 손 가득 경건하게 찬물을 들어올려 얼굴에 끼얹고 생각해본다. 이 물은 어디서 온 것인가. 수도꼭지

에서는 간혹 휴대폰 소리도 뒤섞여 들려온다. 이럴 때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었다 한다. 누가 이 신 새벽에 나와 내 통하고자 하는가. 내 환청의 천박함에 놀라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다. 그런데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름하여 「샘골」이다. 샘골 작업장에서 낮에 그림 그리고 밤에는 글을 쓴다. 이 곳은 산기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물길이 가까우면 몸에 해롭다는 생각이 집터를 잡는데 작용했을 것이다. 오래된 집들은 대개 오래된 사람들의 예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집과 산기슭 사이의 골짜기를 거닐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을 늘 그려본다. 지금 얼굴을 씻고 있는 이 물은 골짜기의 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것이다. 전기의 힘으로 끌어올려진 물은 산 중턱의 물탱크로 고이고 연결파이프를 통해 집안 곳곳으로 배달되고 있다. 씻는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또 찬물교 신도처럼 몸과 마음에 낀 때를 씻어서 경건하게 아래로 흘려보낸다. 아래는 어디인가. 내 몸을 거쳐 흘러간 물들은 어디를 돌아서 또 내게로 오는가.

방으로 돌아와 동그란 찻잔을 앞에 두고 생각해본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뜨거운 물을 만난 마른 잎들이 천천히 풀어지며 향기를 피워 올린다. 날개 달린 가벼운 물, 흩어지고 뭉치는 물, 딱딱한 물, 푸석한 물, 동그란 물, 피와 땀과 침과 오줌과 눈물과 정액의 뜨거운 물... 이런 물의 순환 속에 나와 세계가 이어져 있다. 나는 막 꽃이 피는 난분에 물을 조금 준다. 함박꽃을 피우는 이 순간을 위해 난초는 오랫동안 뿌리 깊숙이 물을 저장해 두었을 터이다.

우리 그림은 대개 물로 그린다. 물을 다루는 사람의 품성과 기질이 그림의 90%이다. 그러니 가히 물그림이라 해도 무방하다. 종이나 천은 물을 흘러가게 하거나 붙잡아 두는 발이다. 노련한 화가는 늙은 농부처럼 물이 젖고 마르는 천기의 이치를 몸으로 느낀다. 吾國張承業은 물기를 가장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애썼고, 秋史金正喜는 물기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그들의 품성이자 기질이었다. 그러므로 吾國의 그림은 금방 붓을 놓은 듯 생기를 머금었고, 秋史의 그림은 겨울 들판이듯



서늘한 기운으로 충만하다.

나의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는 내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물길에 기대어 있다. 좋은 물을 받아들여 향기롭게 내뿜는 게 나의 양생법이다. 이런 양생이 좋은 그림과 글의 원천이라고 여긴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물이 아니다. 물과 같은 것도 아니다. 물은 갈수록 흐리고 거칠다. 나는 가끔 선인들의 노래 한 자락을 가만 읊조려본다. 좋은 산수화 한 폭이 절로 그려진다.

『靑山도 절로 절로 綠水도 절로 절로 / 山 절로 절로 水 절로 절로 山水間에 나도 절로 /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 절로 하리라』



⑧ (주)이메이션 코리아

컴퓨터 디스켓 및 CDR 생산·제조업체

2백억원 이상의 매출로 국내 시장 장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손때묻은 앨범을 열어보곤 했다. 또 좋은 글을 남기고 싶거나 학교 숙제와 회사 자료를 준비해야 할 때면 손이 닳도록 종이에 글을 써서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빛 바랜 사진을 다시 원래의 색깔 그대로 복원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손쉽게 기밀 서류 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무겁고 두터운 책을 들고 다니는 대신 디스켓 또는 CD 한 장에 내용물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출력기가 있는 곳이면 손쉽게 보거나 인쇄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및 백업제품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갑자기 전원이 나가 저장된 내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된다.

작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보관해주는 일련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바로 지난 96년 3M에서 분사한 이메이션(IMATION)의 한국지사 (주)이메이션 코리아(사장 李長羽·51기 AMP)다.

이메이션은 3M에서 데이터 저장 및 이미징 부문을 분리, 1996년 7월 전세계 60개국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디스켓 제품을 필두로 다양한 정보철, 저장 및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 일반소비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메이션의 회사명은 정보(Information)·이미징(Imaging)·혁신(Innovation)·상상력(Imagination)의 합성어로, 이메이션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메이션 코리아(imation.co.kr) 역

시 1996년 이메이션이 3M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한국 3M에서 분리되어 설립됐다. 이메이션의 제품은 신속성과 대용량, 안정성을 요

구하는 데이터 제품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의 신뢰를 쌓는데 성공했다. 1952년 세계 최초로 컴퓨터 데이터 저장용 테이프를 개발하며 대용량 데이터 관리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IT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저장은 필수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됐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메이션이 있었다.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와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4백여 명의 연구인력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데이터 저장제품 개발과 관련, 2백8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토리지(storage)업체로 인정 받고 있는 이메이션 코리아는 1996년 설립 이후, 외환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속적인



李長羽 사장

성장을 이루며 기존 디스켓을 비롯해 개인용 저장장치 분야를 선도하는 CDR분야에서도 국내 최대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한해동안만 2백20억원의 매출액과 2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0%의 부채율을 자랑하고 있다.

기업 내에서도 임직원과 최고경영자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매달 정기적인 미팅(ECM: Employee Communication Meeting)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을 교류한다. 매년 여름휴가를 전후해서는 Summer Book Rally를 열어 최신 경영, 경제 관련 서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모든 직원이 MBA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와 교재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과 가족 전원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신설,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 2000년에는 발리, 2001년 캄보디아 및 베트남, 2002년에는 뉴질랜드 여행을 주선했다. 이러한 열린 경영, 직원들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등은 한발 앞선 마케팅 및 영업 프로그램 창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李長羽사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시상하는 경영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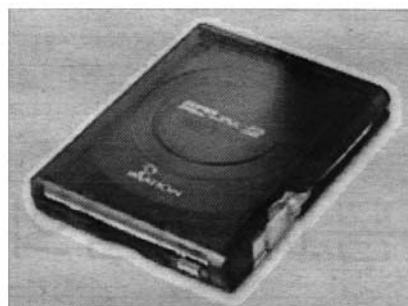
이메이션 코리아는 2001년 1천4백만 장의 CDR를 판매한데 이어 2002년 2천만장 이상의 공CD를 판매했다. 가장 인기 있는 「CD-R 화이트 골드 48X」는 디스크 뒷면의 기록보호층을 보호하기 위해 UV코팅을 입혀 데이터 보존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얇은 층의 공기청정기능을 도입해 제품의 내구성을 높였다.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전략도 빼놓지 않는다. CDR은 일반·슬림·스핀들케이스로 이뤄졌으며, 패키지도 1·5·10·20·25·50·1백장으로 묶었다. 제품 색상도 화이트 골드·블랙·네온·프린터블·뮤직 등으로 차별화해 선택 폭을 넓혔다.

李사장은 『이메이션은 3M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은 지 불과 3년여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15억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1999년 포춘지에서 발표한 America's most Admired Companies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문에서 3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IMF시절인 96년에도 2백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98년에는 전세계 이메이션 중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고객의 의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을 위하는 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表)



이메이션 디스켓



이메이션 슈퍼디스크



이메이션 CD-R

모교소식

제57회 학위수여식

총 5천5백3명 학위 받아

鄭총장 “옳은 길 아니면 가지 않는 용기 필요”



모교(총장 鄭雲燦)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權彝赫·李賢宰·朴奉植·李基俊전임 총장과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鉉대학원장, 李喜祥기성회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宇哲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4백44명, 석사 1천7백38명, 학사 3천3백21명 등 총 5천5백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鄭雲燦총장은 식사를 통해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원칙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므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굳센 용기를 여러분들께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인의 훌륭한 두뇌가 우리 사회 공동의 이익과 자산

으로, 또 소외된 이웃들의 빛과 소금으로 환원되는 지점에 진정한 정신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음대 성악과 朴世源교수가 축가로 「희망의 나라로」를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의대를 수석 졸업한 羅偵王양이 인사를 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崔仙動(미대 서양화과) 동문이 51년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52년 미대에 입학한 崔동문은 졸업을 1년 앞두고 가정형편상 휴학을 해야 했으며, 2001년 재입학 형식으로 복학을 해 감격적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

또 전체 16개 단과대 중 10개 단과대에서 여자 수석이 배출됐으며,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적은 법대, 의대, 치대에서도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했다.

각 단과대학별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대한 종장상과 동창회 장상 시상도 거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한경진-박미선 △사회대 : 황유리-이승호 △자연

대 : 권혁훈-허 단 △간호대 : 조원임-한수진 △경영대 : 이성욱-김재림 △공대 : 홍성근-이미정 △농생대 : 박지현-기창석 △미대 : 손형우-정연우 △법대 : 김혜진-김 진 △사대 : 정지현-김보연 △생활대 : 서정혜-문성운 △수의대 : 오세운-대상자 없음 △약대 : 전금주-강태경 △음대 : 강상미-정소운 △의대 : 나정임-최종원 △치대 : 이정은-윤현민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5천5백3명(학사 3천3백21명, 석사 1천7백38명, 박사 4백44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7만6천2백95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224	8,832
사 회 과 학 대 학	349	11,372
자 연 과 학 대 학	229	8,744
생 활 과 학 대 학	77	3,331
간 호 대 학	51	3,041
경 영 대 학	182	5,325
공 과 대 학	830	35,713
농 업 생 명 대 학	305	18,486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03	4,378
법 과 대 학	191	14,350
사 범 대 학	271	23,170
상 과 대 학	-	6,723
수 의 과 대 학	3	1,961
약 학 대 학	81	5,631
음 악 대 학	153	6,414
의 과 대 학	173	10,079
치 과 대 학	99	5,498
대 학 과 원	2,005	66,493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보 건 대 학 원	55	2,679
사 범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47	3,822
환 경 대 학 원	75	1,882
소 계	5,503	259,781
준 회 원	-	13,338
(단 기 과 정)	499	9,118
총 계	-	276,295

학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준공 기념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日훗가이도대 후지타 부총장과 美워싱턴주립대 수의과대 베일리 학장이 각각 21세기 동·서양에서의 수의학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日동경대 농생명과학부 하야시 학장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할을 맡아온 서울대와 동경대가 어떻게 상호 협력하여 국제 수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제제기를 했으며,李학장은 최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제시했다.

모교 캠퍼스종합화 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인 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은 총 1백74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98년 12월 착공돼 올해 1월 17일 이전을 완료했다.

수의과대학

관악으로 이전… 신축교사 준공



수의과대학(학장 李興植) 관악캠퍼스 준공식이 지난 2월 12일 수의대 대강당에서 모교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李喜祥기성회장 등 모교 관계자와 수의대동창회 李佑宰회장, 푸리나코리아 金基鎬회장 등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鄭총장은 축사에서 『관악캠퍼

이어 李興植학장은 『수의학은 인류 보건향상과 질 좋고 값싸며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의대 교직원 모두는 앞으로 이 건물 일 뿐 아니라 최우수 연구집단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 앞서 「21세기 수의

鄭雲燦총장 졸업식사 요지



졸업이란 한 단계의 끝이자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졸업은 학생신분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제부터는 삶과 노동, 학문과 직업, 자물과 책임에 대해 한층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배우는 데만 골몰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적극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서울대학교가 역사와 사회에 책임을 지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온 우리 서울대학교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능력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지성인으로 키워 낼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교양과 능력뿐 아니라, 책임감과 봉사정신까지 갖추었다는 평가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소임을 적절하게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참된 일꾼들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윤리와 책임감이 결여된 기형적 전문가는 결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 서울대학교를 향해 쏟아지는 질책이 과연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일생의 자랑으로 여긴다 해서 아무도 나무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부심이란 윤리와 책임감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오만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富貴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와 이익을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나 출세를 인생의 제일 원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흔히들 사회는 정글과 같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이를 살아가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원칙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굳센 용기를 여러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각 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려는 자세, 또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흔쾌히 도움을 주는 자세-바로 이것이 참된 지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결여된 채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만의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졸업에 즈음하여 여러분들은 각자 많은 생각과 꿈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았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도 그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발을 내디딜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상황은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회의 문턱으로 들어가려 하는 여러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차원의 역사적 비전과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 이 사회의 역사적 과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찬 가슴으로 그 품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봄을 맞아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관악캠퍼스의 아름다운 정경처럼, 여러분들을 맞은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서 기쁨과 희망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林光洙회장 졸업축사 요지

IT혁명과 함께 그 프런티어(Frontier)의 지평이 일시에 넓어진 21세기 가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의 큰 물결과 함께 온 세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미지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1세기를 혹자는 지식정보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기가 되리라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정보사회에서, 깊이 그리고 오래 숙고해보지 않는 사람의 지식이 과연 사회를 올바르게 감지해 살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인터넷 서핑(Internet Surfing)과 미디어를 통해 취득한 정보량과 인간의 통찰력은 과연 비례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21세기를 관통하는 패러다임(Paradigm)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또한 확신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세기와 시대를 불문하고 확실한 것은,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은 학생의 신분으로 안주해오던 일상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나, 희망과 용기로 굳건히 도전하고 헤쳐 나간다면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자, 창조성의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축적했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생활에서 직·간접 체험과 숙고로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깊이 있게 가꿔 나간다면 세상의 변화마저도 주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창조성의 세상을 살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Elite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무는 깊이 자각해야만 합니다. 서울대인은 항상 내부 구성원이 봤을 때 스스로 갖는 정당성과 외부인에게 비치는 신뢰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지난 1월 여러분의 자랑스런 선배이자 동문인 李鍾郁박사가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UN 산하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李鍾郁박사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서울대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부심이기도 한 일입니다.

李박사가 후배들에게 전해주시길 간절히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즉 「서울대인은 달라져야 한다. 또 다른 학생과는 달라야 한다」

「인기있는 일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 나아가 인류사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라」.

서울대인의 훌륭한 두뇌가 우리 사회 공동의 이익과 자산으로, 또 소외된 이웃들의 빛과 소금으로 환원되는 지점에 진정한 서울대인의 정신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한 것입니다.

서울대인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서울대 동문들이 떼지어 덕성을 보이면 큰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조국 앞에, 민족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서로 도우며, 겸손하나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서울대를 우리의 손으로 세계 속에 우뚝하게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金禾曠할머니

전 재산인 2억5천만원 아파트
농생대에 장학금으로 기부

金禾曠(사진 右)할머니가 지난 2월 4일 모교 총장실에서 鄭明熙부총장, 농업생명과학대학 柳寬熙학장, 柳根培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강남구 개포동 15

평 아파트를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鄭雲燦총장에게 전달했다. 金할머니의 아파트는 사후 매각돼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金할머니가 장학금을 기부한 것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오빠를 기리기 위해서다. 황해도 해주 출신인 金할머니의 오빠 故 金在圭(43년入)은 수원고등농림학교(현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에 입학했지만 그 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등졌다. 똑똑했던 오빠의夭折은 金할머니에게 평생의 한

으로 가슴 한쪽에 응어리져 있었다. 이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오빠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전 재산인 아파트를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해주 수양고등여학교를 중퇴한 金할머니는 51년 1·4후퇴 당시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내려왔다. 당시 金할머니는 해주 동공립중학교를 나온 오빠의 동창의 도움으로 유엔군 내에서 행정업무를 보며 정착을 할 수 있었다. 金할머니는 수원시청과 서울시청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89년 정년퇴임을 했다.

金할머니는 10여 년 넘게 척추관절과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金할머니는 「오빠는 생전에 총명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 칭찬이 자자했다」며 「후배들이 오빠의 뜻을 기려 열심히 공부한다면 혼자 산 50년 평생의 한이 눈 녹듯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규정」 제정

연구자에 수익 70% 이상 배분

모교는 지난 2월 5일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교 교직원이 학교와 정부출연기관 등으

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산학협력단이 기술의 특허출원 등 제반 절차와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맡고, 수익금은 ▲2천만원 이하의 전액 ▲2천만원~1억원 이하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 ▲1억원 이

상은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교수, 학생 등 교직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면서도 평균 수익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돼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절반씩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은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순수입액의 5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제학부

하버드대 Barro교수 초청 특강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美하버드대 경제학과 로버트 배로(Robert J. Barro·사진)교수가 2003년 1학기 사회과학대 경제

학부(학부장 李之舜)에서 「경제성장론 연구」를 강의한다.

노벨상 단골 후보인 배로교수는 초빙교수 자격으로 5월 한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부 4학년과 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명한 외국교수가 국내 대학을 방문할 경우 대부분 특강에 그쳤던 점에 비춰볼 때 배로교수가 학점을 주는 정식 강의를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70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배로교수는 시카고대 교수를 거쳐 87년부터 하버드대에 재직중이며 美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칼럼니스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 중 14권이 한국·중국·일본·아랍어 등 9개국어로 번역, 출판됐을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과 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주제로 대담과 논문 작성에 나섰는데 이 내용이 「한국 위기와 극복」이란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沈在箕교수 등 21명 정년 퇴임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鄭雲燦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교직원,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沈在箕(국어국문학)교수, 李翊燮(국어국문학)교수, 韓啓傳(국어국문학)교수, 白樂晴(영어영문학)교수, 金九漢(언어학)교수, 鄭鍾弘(종교학)교수, 金晉均(사회학)교수, 愼鏞慶(사회학)교수, 李寬鎔(심리학)교수, 趙明翰(심리학)교수, 宋熙星(물리학)교수, 沈載亨(지구환경과학)교수, 尹鴻植(지구환경과학)교수, 金宗相(컴퓨터공학)교수, 李東寧(재료공학)교수, 李敦熙(교육학)교수, 秦敦勳(국민윤리교육)교수, 李鍾淑(기약)교수, 金永珉(의학)교수, 金重述(의학)교수, 池堤根(의학)교수.

수, 金晉均(사회학)교수, 愼鏞慶(사회학)교수, 李寬鎔(심리학)교수, 趙明翰(심리학)교수, 宋熙星(물리학)교수, 沈載亨(지구환경과학)교수, 尹鴻植(지구환경과학)교수, 金宗相(컴퓨터공학)교수, 李東寧(재료공학)교수, 李敦熙(교육학)교수, 秦敦勳(국민윤리교육)교수, 李鍾淑(기약)교수, 金永珉(의학)교수, 金重述(의학)교수, 池堤根(의학)교수.

수리과학부

성대 출신 李又英교수 채용



수리과학부(학부장 韓鍾圭)는 지난 2월 14일 국내 타대학 출신 박사인 李又英(48·사진)

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타 대학 출신에 국내에서 석·박사를 마친 타 대학 교수를 정년 보장의 정교수로 채용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3월부터 강의를 맡은 李교수는 81년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동대 교수를 거쳐 89년부터 성균

관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대한수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이 교수는 「토에플리츠 쌍의 하이퍼노멀 성질세계」에 관한 논문을 미국수학회지에 발표하는 등 세계 유수 학술지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李교수는 「모교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 대학 출신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내 수학계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鎬)

SNUA OPINION LEADER

난치성 질환 「간경화」 치료 연구

간경화로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만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경화로 사망에 이르는데, 문제는 간경화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다. 치료제가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모교 연구진에 의해 간경화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모교 약대 金相建(82년 藥大卒) 교수 연구팀은 대표적 발암억제 약물인 올티프라즈의 암 예방 기전을 규명하면서 암 발생 억제를 위한 새로운 세포내 회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올티프라즈가 암을 예방하는 경로와 동일한 기전으로 대표적 난치성 질환인 간경화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개가를 올렸다. 이 연구 결과는 암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미국립암연구소 학술지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실험생물학회지인 「FASEB Journal」에 보고됐다.

간경화 발병 원인과 증상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실질세포인 간세포가 없어지고 간 조직 중 결합조직, 즉 딱딱한 섬유질이 쌓여 가는 증상을 갖는다. 간경화의 원인은 대부분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 감염이 수년간 만성적으로 진행될 때 나타난다. 그밖에 독성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나 기생충감염, 만성적인 음주에 의한 간세포의 파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이 질환을 주도하고,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간경화의 원인이 된다.

간경화 환자의 약 10~15%는 만성적 음주에 기인한다. 간질환은 한국인에 있어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간경화와 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다. 한국인의 간경화로 인한 사망률은 연간 1만여 명에 달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간 37만명에 이르는 간경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만5천명이 사망한다(질병에 의한 사망률 10위). 일본에서는 연간 1만6천명이 간경화로 목숨을 잃는다(질병에 의한 사망률 9위). 그밖에 이 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

족의 고통, 높은 의료비용 및 사회적 손실비용 또한 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경화는 간경화증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진단되므로 간경변증이라고도 하는데 간 조직 중 섬유조직이 축적되고 간 조직이 위축되어 작아지는 질환이다. 간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간에서 만들어지던 알부민 등의 혈장 단백질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 배에 물이 고이는 복수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간경변증으로 인한 간경화는 간성뇌증, 정맥류파손, 간암 등의 합병증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아직

화학물질 「올티프라즈」가

간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이 환자들에게는 실리마린, 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 등의 약물을 사용하며, 바이러스성 만성간염에서 기원한 간경화에는 라미부딘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약물의 뚜렷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단지 라미부딘을 만성간염환자에게 사용할 때 초기 간경변증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화된 간에서는 염증유발인자에 의한 간세포 파괴 및 섬유소의 축적이 일어나고, 염증과 축적된 섬유소에 의한 대식세포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간은 증식 및 재생능력이 매우 높은 조직이나 질환이 만성화됨에 따라 실질조직의 위축, 섬유소축적 및 간기능 부전을 초래해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올티프라즈」 연구의 배경

본 연구실에서는 수년 전 올티프라즈의 방사선 보호효능을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다. 올티프라즈는 화학물질로서 약물의 이름이며, 이 약은 원래 약 20여 년 전 프랑스 제약회사 「롱프랑」에서 기생충 구제약으로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등에서 올티프라즈의 구충효능을 시험하면서 사람에게 고용량 투여한 적이 있으나 의약품으로 제품화되지는 못했다. 이

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티프라즈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발암물질에 의한 간암, 피부암, 직장·대장암, 폐암의 발암억제 효능을 연구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美존스홉킨스대학·국립암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사람에게서 발암억제효능을 연구, 보고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연구에서 어느 정도 암 예방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올티프라즈는 독성 및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동물실험의 긍정적 효과

모교 약대 연구팀에서는 동물과 배양된 세포를 사용해 올티프라즈의 약리 효과 및 작용원리를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연구에서 올티프라즈는 간경화 및 간부전으로 인한 치사율을 현저히 개선했으며 간경화로 감소되었던 체중 및 간의 중량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티프라즈가 간경화의 진행 즉 간경변 과정을 억제하고, 더욱 희망적인 것은 올티프라즈가 간경화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데 있다.

올티프라즈는 간경화로 만들어진 결체조직을 용해하고, 결체조직에 의한 결절을 없애는 효과를 보였으며, 간경화로 인한 복수를 제거하고 혈장내 단백질량을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킨다. 올티프라즈는 경화된 간 조직에서 간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작아졌던 간 무게가 증가하고, 이에 따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 낮추고

간기능 회복시킬

유일한 치료제

라 체중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다.

간경화 동물 및 배양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올티프라즈는 간경화시 증가되는 특정 단백질을 줄이고, 병적세포의 활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티프라즈는 간경화시 증가하는 전환성장인자의 생성을 억제했으며, 이러한 전환성장인자의 감소는 특정한 전사인자(C/EBP beta)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2006년까지 제품화 기대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올티프라즈가 사람에게도 간경화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간경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올티프라즈는 유일한 간경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물을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비록 올티프라즈가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있다고는 해도 제품화돼 시판된 적이 없으므로, 새로운 용도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金 相 建

- 1982년 모교 약대 졸업
- 1985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89년 美노스웨스턴대 박사학위 (약물학)
- 1990~1992년 美웨인주립대 교수
- 1992~1998년 덕성여대 약대 교수
- 1999~현재 모교 약대 교수

그러나 처음 만들어져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신물질과는 달리 올티프라즈의 안전성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 개발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약물 개발의 임상연구 즉, 다양한 독성시험과 그 밖의 약리 시험 등 여러 시험을 거치고 임상 1~2상 시험을 하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빠르면 2005년, 늦어도 2006년에는 올티프라즈를 간경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티프라즈가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간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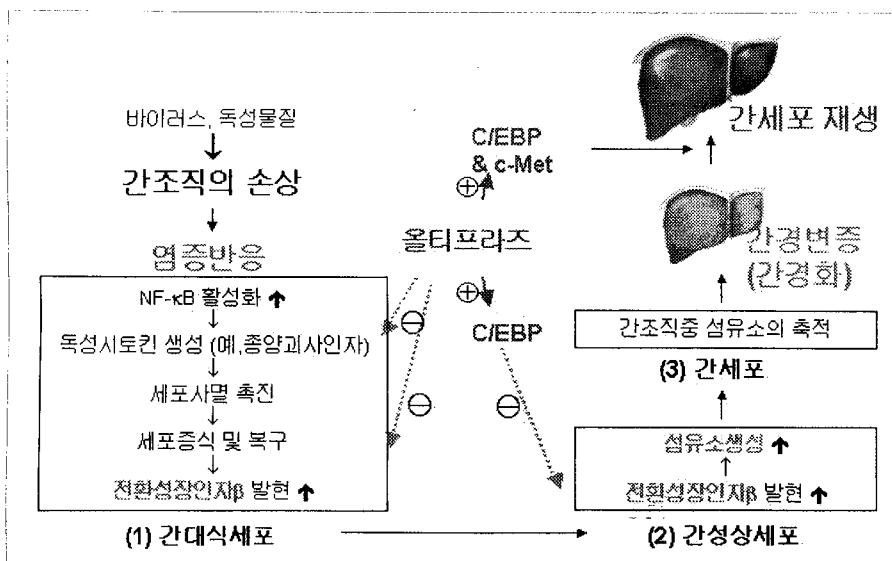
신약 개발에 투자 요구돼

신약개발은 특성상 다양한 학문분야, 첨단기술,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합쳐져 이뤄내는 생명과학의 정교한 결정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약을 개발하는데는 전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능력의 혁신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제약사와의 경쟁은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약개발의 핵심은 기초학문에서 이끄는 과학적 선도, 이를 의약품 개발로 발전시키는 응용성과 창조적 노력이 함께 하는데 있다.

올티프라즈를 간경화 치료제로 개발할 때 파급효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약물을 모델화합물로 활용해 간경화 병리의 세포내 및 세포간 신호를 찾고 이를 약물작용점으로 발견했다는 점에 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검색 및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본 연구실에 국가 지정실 연구지원을 했다.

본 연구개발이 성취된 후에는 저비용 고부가가치형 신의약품개발의 기반기술이 완성되고, 이 기술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한 축매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약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는 신의약품 개발기술을 국가 선도과학의 한 축으로 설정해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그들에게 ‘가문의 영광’을 강요하지 않길!

安眞姬((주)아트로드 영화홍보팀장): 安勝涉(98년 社會大卒·연합뉴스 기자)등문 동생

준수한 외모에 서울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사업가 박대서(정준호).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여자 장진경(김정은)과 침대에서 잠이 깬 뒤 화들짝 놀란다. 함께 잠자리에 든 기억이 전혀 없는 이 여자, 알고 보니 전남 여수에서 한가닥 하는 조폭 집안의 고명딸이다. 이제 대서는 구석에 몰린 생쥐나 다름없다. 진경의 아버지와 세 오빠가 둘을 결혼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무식이 똑똑 흐르는 이 집안 사람들은 학벌 좋은 대서를 사위로 맞이해 가문의 영광을 되살리려 한다.

작년 가을 개봉해 전국 5백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대적인 흥행 바람을 일으켰던 「가문의 영광」의 줄거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사위를 얻기 위해 온갖 소동을 벌이는 조폭 집안의 에피소드를 그린 이 영화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서울대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과장되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집안에 서울대생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에는 서울대생이 두 명 있었는데(언니, 큰오빠), 이 둘의 존재는 그야말로 집안의 큰 자랑거리였다. 사돈, 팔촌까지 통 틀어도 서울대생 하나 없었던 이웃 아줌마들은 어떻게 한 집에서 서울대생이 두 명이나 나왔냐며 부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았고, 덕분에 부모님은 어깨에 힘 꽤나 주실 수 있었다. 어린 나 또한 광주에서 서울까지 유학(?)가 국내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가 자랑스러웠고 틈 날 때마다 친구들에

게 어깨를 으쓱대곤 했다. 방학을 맞아 내려오는 언니, 오빠를 볼 때면 슈퍼팬이나 원더우먼을 보는 것처럼 경외감이 솟아났고, 영화 「가문의 영광」에 나오는 것처럼 「축! 서울대생 방학 맞아 귀향」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라도 만들어 광주 바닥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생각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진학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자취하던 집이 신림동 근처라 서울대생들을 꽤 접할 수 있었는데,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서울대생들 또한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이었다. 다만 다른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정도랄까. 하지만 그들 주위의 환경은 그들을 외계인으로만 들고 있었다. 서울대생이라는 것만 알면 무조건 호의적으로 변하는 식당 아줌마, 택시 아저씨들을 비롯, 서울대생과 소개팅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여대생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타대학 고시생들 등 모두들 받는 것도 없이

서울대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퍼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서울대생에게조차 「나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심어주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서울대생들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기대와 지지는 곤란하다. 또한 이들의 특별함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특별함이 있고, 이들은 그것 중의 하나를 가진 것 뿐이다. 하나의 특별함에 목숨걸고 덤비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어릴 적 나는 우리 언니, 오빠가 역사책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착실히 월급 받으며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서울대생은 서른이 넘는 나이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제작부 막내 일을 하며 열심히 커피 타고, 쓰레기를 치운다. 이것이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대생들에게 너무 많은 「가문의 영광」, 「국가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그들에게만 가문을 빛낼(?)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린 초등학생에게 「서울대생=역사에 남을 위인이 될 사람」이라는 황당한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 다양한 특별함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얼마 전 작은 모임의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다닌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등산동아리의 연락책이지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챙기고, 먼저 손 내미는」 일에 서툰 만큼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도리 없이 하게 됐지요.

등을 떠밀리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소개서에 「특징적 장·단점 : 주어진 일은 뭐든 최선을 다해 하고, 종종 시키지 않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썼는데 이 대목이 「한번 해 보라」를 거절할 수 없는 발미가 됐던 겁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무덤을 판」 셈이지요.

처음엔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참석 예정인원을 알아야 선물이나 간식 숫자를 맞출 수 있으니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사 부탁해도 가타부타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에 가자」는 걸 마치 개인 부탁처럼 여기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가 초대장을 보내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꼭 오라고 거듭 요청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이 가지 않기 일쑤였던 게 얼마나 괴심한 짓이었는지 알고 반성했지만 그래도 섭섭하고 서운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꼭 참고 계속 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주어진 일엔 최선을 다한다」고 공언한 탓도 있지만 동아리 회장님의 정성에 감복한 까닭입니다. 회장님께서 사업상 바쁘더라도 불구하고 첫 산행 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준비한 걸 시작으로 산행 때마다 꼬박꼬박 회원들을 위해 수건, 등산양말, 스위스칼 같은 선물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제가 놀란 건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는 핏계 아래 「받고 주기」에 익숙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됐구요.

연락책 노릇을 계속하는 동안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참석하겠다」 「사정이 있어 이번엔 함께 갈 수 없겠다. 다음엔 꼭 참석하겠다」는 답장이 늘어난 건 물론 메일 회신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등산동아리 회원이 아닌데 가도 되느냐」 「동아리 간사 정성에 이번엔 참석해야겠다」 「등산은 안 해 봤는데 메일을 자주 보니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어떤 조직이건 앞장서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함께 등산을 하지 않아도, 메일에 답장은 하지 않아

제게 이제쯤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나 터무니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준 것만큼 못받을까봐 먼저 주지 못하는 인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것이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재느라 주눅거리는 동안 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도 깨우쳐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해야, 마지못해 최소한의 뉘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몽땅 다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 터득했다고나 할까요.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고 탁월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뺨이 없고 운이 나쁜 탓도 있겠지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고요. 마땅치 않은 세상, 나서왔자 구정물만 뒤집어 쓸 테니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중엔 자기 능력을 믿고 누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리느라 아무에게도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작은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 결과인 듯한 수도 있습니다. 실력 있고 똑똑하다는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부적응자 내지 말짱꾸러기로 여겨져 배척당하는 것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헌신하는」 대목이 부족한 탓 아닐까요, 혹시?

「먼저 손 내미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쑥스럽고 민망하고 자칫 노리는 게 있지 않나 오해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앞으로 망설이지 않고 내밀어보려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잡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동 아 리 심 부 름 을 통 해 얻 은 깨 달 음

걸 고르고 포장해오는 섬세함이었습니다. 남녀를 구분해 물건 색과 포장지 색깔을 달리하고, 선물 하나 하나에 산행 기념품임을 알리는 내용을 인쇄하고 시간상 그게 안되면 직접 써서 붙이고...

「사람을 시켜서 할 텐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일도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제 짧은 경험의 소산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업무인 만큼 비서를 시켜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인과 함께 선물을 싸는 동안 여자는 누가 오느냐고 물어 누구누구라고 대답하셨다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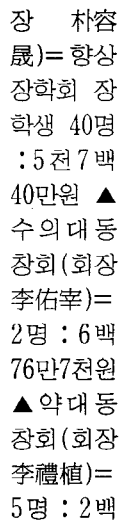
그야말로 돈 생기는 일이기엔커녕 돈과 시간을 쓰지만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나이든 분의 이같은 마음씀은 제게 심부름꾼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주고 받기」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대답 없는 메아리는 싫다」

도 심부름꾼 역할에 점수를 주고 있었던 셈이지요. 「거간 노릇은 싫다」고 생각해온 제겐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나만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끌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챙기고 손 내밀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기억하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도 새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주지 않고 받을 걸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준 것의 절반도 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팬스레 먼저 나서서 연락하고 전화하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 혹은 자칫 아부처럼 느껴질지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걱정 때문에 무심한 채 하거나 뒤로 빠져 있기 일쑤였지요. 등산동아리 심부름꾼으로서의 경험은

鄭총장 “꿈을 가지고 지성과 인성 연마하길”



한편 『젊음의 특권』은 가슴 설레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것』이라며 『많은 선배 동문들은 장학생 여러분이 고상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이상의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생활과학대동창회(회장 李義淑)=4명:1백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朴明子)=5명:4백64만8천원 ▲상대동창회(회

尹원장은 이날 모교 신입생 宋恩珍(생명과학부 1년)·崔敏眞(간호학과 1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4백54만4천원을 전했다.

權智勳(기계항공공학부 4년)·金勝泰(전기공학부 4년)·朴相源(기계항공공학부 3년)군, 宋美愛(생물교육과 3년)양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7백64만2천원을 전달했다.

宋晸斗(의학과 4년)·鄭雲慶(의학과 3년)군, 신입생 朴倉儀(지구환경과학계열 1년)·金良洙(전기컴퓨터공학부 1년)군 등 4명에게 1백50만원씩 총 6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張在貞(사회복지학과 4년)·金
惠敬(수학교육과 2년)양 등 2
명이 등록금 전액 총 2백78만1
천원을 받았다.

鄭八道·李慈偉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39만원

(주)흥인 鄭八道(1기 AIP·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鄭八道·李慈偉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鄭회장은 모교 재학생



李學連(산업공학과 4년)·權石重(경영학과 2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39만5천원을 전달했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경영학과 2명 지원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炯旻·梁台鎬(경영학과 3년)군이 등록금 전액 2백93만원을 받았다.

鄭哲圭 특지장학금 2명에게 4백52만원

신양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이사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

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鄭哲圭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모교 재학생 金泰安(응용화학부 박사 2년)·金倫煥(응용화학부 3년)군이 등록금 전액 총 4백52만9천원을 받았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의대·법대 2명 후원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관악회 이사)이사는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金동문은 법



대 朴達宰(법학부 3년)군과 의대 金鍾新(의학과 2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4백90만7천원을 수여했다.

孫致武 특지장학금 자연대 2명 혜택 받아

지질과학과동창회 金英雄(67년 文理大卒)회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孫致武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瑜晶·金玆那(지구시스템과학과 4년)양 등 2명이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을 받았다.

吳仁錫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만원

재미총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 명예회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吳仁錫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아름(인문계과학과 3년)양, 金進輝(경제학부 3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1만6천원을 전했다.

郭永騷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59만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騷(60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林大成부사장(사진 左)이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3학년도 제1학기 「郭永騷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林부사장은 모교 재학생



徐有珍(천문학과 4년)양, 金泰龍(생물교육과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3백37만3천원을 전달했다.

張學淳 특지장학금 공대 학생 2명 도와

삼양정수공업(주) 張學淳(50년 工大卒)회장은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제1학기 「張學淳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4일 張회장이 출연한 2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이날 공



대 韓明實(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1년)양, 金潤中(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5백27만5천원을 지급했다.

특지장학금 전달식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주)한국기술교류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대표가 설립한 「朴柱鐸 특지장학금」으로 체육교육과 3년 李旭弼군에게 1백96만6천원을 수여했으며, 간호대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학과 석사 2년 朴花順양에게 2백51만9천원을 전했다.

동일기술공사 黃海根(60년 工大卒)회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文儂淨(법학부 2년)양이 1백55만1천원을 받았으며, 부평문화재단 李道卿(63년 農大卒)이사장과 아들 李燦振(89년 工大卒·드림위즈 사장)동문이 설립한 「李道卿·李燦振 특지장학금」으로 申太壽(농생명공학부 석사 2년)군에게 2백만원을 전달했다.

鄭大永(55년 商大卒·前한주통산 고문)동문이 부인 閔婉基 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신입생 李性桓(사회과학대 1년)군에게 1백72만2천원을 지급했으며, 金鍾祺(55년 師大卒·前인제高 교장)동문이 설립한 「金鍾祺 특지장학금」으로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인재高 출신 신입생 朴永濬(지구환경과학계열 1년)군에게 2백27만2천원을 전했다.

성지출판(주) 洪尙郁(87년 農大卒)사장이 설립한 「洪尙郁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康勳(물리학과 3년)군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했으며, 화학과동창회(회장 金秀子)가 설립한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世英(화학부 4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82만2천원을 수여했다.

유니온테크 安聖哲(63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安聖哲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尹曠珠(법학부 2년)양에게 1백55만1천원을, (주)오미아코리아 鄭忠始(76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사장이 설립한 「鄭忠始 특지장학금」으로 鄭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공대 재학생 沈度



李道卿·李燦振 특지장학회



金鍾祺 특지장학회



安聖哲 특지장학회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회



金道昶 특지장학회

用(응용화학부 4년)군에게 1백98만8천원을 전달했다.

송원기업(주) 明泰鉉(50년 工大卒·관악회 이사)대표이사가 설립한 「明泰鉉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趙文基(피아노과 2년)양에게 1백만원을, 지난 10월 7일 본회 金道昶(47년 法大卒·변호사)고문이 장녀 金惠英(79년 音大卒)·장남 金栢均(82년 醫大卒)·차남 金容均(83년 社會大卒)·3남 金性均(86년 經營大卒)동문과 공동명의로 설립한 「牧村 5父子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張文一(법학부 4년)군에게 1백22만3천원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60년 保大院卒)이사장이 설립

한 「朴明潤 특지장학금」은 4월 중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우수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 3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장학금 전달식

각 기금장학회는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在一)는 「齒佛會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亨一(치의학과 2년)군에게 1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본회 李世震(73년 法大卒)사무총장이 「李世震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李賢珠(법학부 2년)양에게 1백55만1천원을 전달했다.

또한 李元圭(63년 農大卒·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圭 기금장학금」으로 진달래(생명과학부 4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1백82만2천원을 수여했으며, 郭東憲(65년 法大卒)변호사가 설립한 「郭東憲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尹範石(산림자원학과 3년)군이 등록금 전액 1백96만6천원을 받았다.

결연 장학금 전달식

한편 본회에서 관리해온 기금 및 특지장학금이 아닌 매 학기 선후배간 1대 1 등록금을 지급하는 결연 기금장학회를 이번 학기부터 설립, 시인 金貞姬(61년 藥大卒)동문이 지정한 의대 재학생 鄭宇玆(의학과 3년)군이 등록금 전액 3백33만1천원을 받았으며, 리사이클21 千錠坤(6기 SGS)대표가 지정한 자원 리사이클을 전공하는 南漢嫻(환경관리전공 석사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2백1만8천원을 수여했다.

동창회 국민카드 사업 9천6백83만원 결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19일 동창회관에서 국민신용카드(주) 曹泰煥(72년 農大卒)사장을 대신해 韓珍坤(사진 左)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신용카드사로부터 「서울대동창회 국민카드」의 기부금 9천6백83만4천3백85원을 전달받았다.

「서울대동창회 국민패스카드」의 기부금은 작년 한해동안 동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일정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80여 개의 기업과 7천여 명의 동문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表)

부천시부

이웃 돕는 모범지부 만들 터

부천시부동창회(회장 金聖父)는 지난 2월 6일 부천시내 낙원 뷔페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그동안 인원결속에만 중요성을 두어 모이는 데에만 급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찾기 위해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동창회 사업 아이템을 내자』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봉사하는 모범

이 되는 모임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金文洙(94년 經營大卒·국회의원)동문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서울대인의 위상이 많이 실추됐는데, 부천 지부를 시작으로 동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자』고 피력했다.

이후 동문들은 식사와 함께 보험수가와 의약분업에 관해 토론회를 펼쳤다.

약학대학

유공 동문·우수 졸업자 표창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2월 22일 잠실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桐田重夫(37년卒)·韓大錫(49년卒·한국의약품 시험연구소 고문)·崔鎮奭(66년卒·단국대학병원 약제부 부장)·崔正樹(70년卒·심장메디칼 사장)·鄭永淑(73년卒·여자동문회 부회장)·崔修榮(73년卒·前식품 의약품안전국장)동문이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헌신한 공로로 「총동창회장賞」을 받았다.

또 金裕卿(60년卒·여자동문회 부회장)·韓圭興(68년卒·동아제약 부사장)·車蓮澤(74년卒·현대백화점약국 대표)·趙裕燮(72년卒·한국산탄제약 부사장)·孫仁子(73년卒·서울대병원 약제부 부장)·徐永鉅(75년卒·모교 교수)·林廷恩(80년卒·여자동문회 총무위원)·鄭海都(80년卒·한국아마노우찌제약 마케팅 부장)·李順孝(81년卒·여자동문회 편집위원)·朴璟浩(82년卒·서울대병원 약무과장)·全順德(88년卒·법무법인 이산 변호사)·金南珠(모교 임상약학연수원 2기 졸업·PANAX약국 대표)동문이 동창회를 빛낸 공로로 「약대동창회장賞」을 수상했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약학과 嚴韓千군과 제약학과 承鎬善양에게 표창패 및 동창회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모교 발전기

금을 기부한 崔英子(58년卒)·李在元(67년卒)동문과 약대동창회 뉴욕지부(회장 成耆魯)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산하 11개 위원회를 6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동창회 기금이 1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이를 기금위원회에 기탁, 운영되는 수익금은 모교 장학금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특별히 약대동창회 뉴욕지부 尹延玉(54년卒)고문이 참석해 모교 재학생 박석진(약학과 3년)군에게 2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의과대학

모교에 미술작품 기증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率)는 지난 2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李회장은 모교 신축이전 기념으로 李興植학장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미술작품을 기증했으며, 신임 임원에게는 기념품을 전했다.

장학재단 현황보고가 있는 후 새로 선임된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회의를 통해 회장단은 연회비 30만원, 이사는 10만원으로 회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모교 교수회의실에서 2003년 1학기 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최재울(본과 2년)·방동하(석사 2년)군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간호대학

3월 12일 정기총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2월 1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강의실에서 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총회를 오는 3월 1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1층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현 李銀淑(75년卒) 감사의 임기가 5월에 만료됨에 따라 姜姬子(69년卒)동문을 신임 감사에 선임했다. 또 金南連 기금 장학생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회장을 7명으로 늘리고, 연2회 개최해오던 전체이사회를 송년 모임으로 대체해 정기총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평생회원 확대 방안 및 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3년 정기총회에서 각 기별 및 지부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창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의했다.

음악대학

9월 29일 음악회 개최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金正吉)는 지난 2월 20일 타워호텔 실버룸에서 韓相宇(62년卒)수석 부회장, 金容汾(62년卒)·李鍾一(65년卒)·高重媛(67년卒)·金光姬(72년卒)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3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신임 회장에 韓相宇수석부회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창회 활동이 미비한 미주 동창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격년으로 열리는 동문 음악회는 오는 9월 29일 개최하기로 하고, 팸플릿에 게재되는 후원명단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동문에 한해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마포 소재 동창회관 사무실에서 金회장이 모교 재학생 신고은(작곡과 4년)양에게 2003년 1학기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2백17만1천원을 전달한 바 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모교 鄭雲燦총장 특강 펼쳐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趙炳祐)는 최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鄭雲燦총장, 李柱榮(27기)·金希宣(28기)국회의원을

의과대학

20회 春春棋聖 바둑대회 개최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2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회 회원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吳卿伯(70년卒)동문이 2003년 春春棋聖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吳卿伯(70년卒), 준우승: 陳泰薰(84년卒), 3위: 懸世尹(78년卒), 4위: 柳元夏(66년卒)동문. △B조 우승: 金明浩(66년卒), 준우승: 안원식(91년卒), 3위: 朴玼洙(71년卒), 4위: 金淳會(56년卒)동문.

공과대학

최우수 졸업생 19명 시상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成百詮)는 지난 2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산학강의실에서 林光洙총동창회장, 韓民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19명의 최우수 졸업생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전자사전을 전달했다. 이어 졸업생 대표로 기계항공공학부 홍성근군이 답사를 했으며, 행사를 마친 후 동문 및 졸업생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이날 선정된 최우수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건축학과 신연수양, 산업공학과 이현수양, 원자핵공학과 이정익군, 조선해양공학과 곽주원군, 기계항공공학부 김대겸·인정빈·홍성근군, 응용화학부 최정규군, 이서영양, 전기공학부 정광모·조명현·정민욱

군, 재료공학부 김병주·강병우군, 이미정양,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서정관군, 정희선·정선영양, 컴퓨터공학부 이상근군.

국가정책과정

푸짐한 경품 추첨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는 최근 한국언론재단 내 셔넬프레스클럽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만찬을 든 참석자들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이날 골프 동호회 행목회 회장인 李東俊(31기 ACAD·기흥관광 회장)동문이 그린피를 면제해주는 코리아CC 및 골드CC 골프회원권 8장을 찬조했으며, 동창회에서는 4kg짜리 쌀 포대 40개를 제공했다.

총간사장이 모교 姜錫昊(70년 文理大卒)·姜泰晉(75년 工大卒)·朱鍾南(79년 工大卒)·徐一源(81년 工大卒)교수 등을 소개했다.

이어 모교 鄭雲燦총장이 「한국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고 모교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었다. (表)

비롯한 동문 2백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趙회장과 모교 공대 韓民九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高昇熹

최고경영자과정

주한 미국대사 초청 특강가져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2월 1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한국금박공업 黃慶老(11기)회장, 한·멕시코친선협회 李英淑(13기)회장, 뉴서울CC 全秀信(29기)대표이사, 코리아리서치센터 朴泳俊(35기)회장, 한양대 柳寅鶴(38기)교수, 朴世煥(39기)국회의원, 두일전자통신 李鳳勳(40기)회장, 뉴로메딕스·실로암 丁璿鉉(40기)회장, 석원산

업 丁石鉉(44기)회장, 문화일보 金正國(45기)사장, SK텔레콤 趙政男(45기)부회장, 삼화공인회계사회 申瓚秀(45기)회장 등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2회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히 주한 미국대사 Thomas C. Hubbard씨를 초청, 「21세기 한·미 관계」에 대한 특별강연을 펼쳐 참석자들로 부터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건축학과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 시연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永熙)는 지난 2월 10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2백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2년 사업보고, 회계 결산 및 감사보고와 2003년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으며, 새로 입회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신년교례회에서 모교 金亨杰 명예교수가 건배제의를 했으며, 金光鉉 학과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石英洙(75년卒·두산건설 상무)동문에게 감사패를, 작년에 개최한 「재학생을 위한 동문 초청 간담회」 연사로 수고한 池淳(58년卒·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金玄中(74년卒·한화건설 대표이사)동문에게 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명지대 兪弘濤(80년 人

文大卒)교수가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동문들에게 우리 문화창조의 한 축을 담당해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번 행사에 맞춰 개설된 동창회 홈페이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 공과대학 부설 건설연구정보센터의 도움으로 개설된 홈페이지(aaa.snu.ac.kr)는 「동창회 소개」 「건축학과(모교 교직원 및 대학연구실 소개)」 「회비납부」 「행사 소개」 「명부(회원 검색 및 2002년 명부를 PDF형식으로 볼 수 있음)」 「갤러리(졸업 및 행사 앨범 수록)」 「클럽(각 기수별 모임 및 동호회)」 「자유게시판」 「My pag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石英洙 동문이 주류 일체를 제공했으며, 李光魯(51년卒)·申琰植(54년卒)·李玄九(64년卒)·南相國(69년卒)·金玄中 동문이 협찬금을 출연했다.

불어불문학과

신임 元潤洙 회장 뽑아



불어불문학과동창회(회장 朴孟浩)는 최근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동문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2002년 활동·결산·감사보고와 원로 동문들의 새해 덕담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元潤洙(58년卒·모교 명예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이어 가진 2부 동문 한마당에서 노래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 洪承昊(62년卒)동문, 금상 : 金斗泳(64년卒)동문, 은상 : 鄭智榮(61년卒)·鄭聖珍(64년卒)동문, 동상 : 朴世崑(80년卒)·崔孝先(86년卒)·이연주(95년卒)동문, 최고동문상 : 梁元(60년卒)동문, 특별상 : 문경훈(96년卒)동문, 최고새내기상 : 이수연(01년卒)동문이 선정됐다.

독어교육과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소개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金學泉)는 최근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 李東昇 명예교수가 후배 동문들과 덕담을 나누었다.

종교학과

신임 회장에 柳炯均 동문 추대



종교학과동창회(회장 高光植)는 최근 뉴국제호텔 두메라 식당에서 모교 鄭鎮弘·尹以欽·尹元澈 교수,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林采正 국회의원을 비롯해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申光澈(86년卒)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高회장의 인사말과 尹元澈 교수의 모교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柳炯均(72년卒·보험개발원 이사)동문(사진)을 새 회장에 추대했다.

또한 동창회 이사에 선임된 金承柱(71년卒)·邊圓一(76년卒)·姜敦求(78년卒)·韓千洙(78년卒)·崔昇煥(80년卒)·李世榮(82년卒)·申光澈(86년卒)·박진원(90년卒)동문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더욱 알차게 업데이트된 동창회 홈페이지(plazal.snu.ac.kr/~religion)에 동문들의 최근 근황 및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많이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진 기수별 모임 및 대학의 시간을 통해 동문간 우의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경품

추첨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받았다.

국민윤리교육과

학위기념패 수여

국민윤리교육과동창회(회장 徐圭善)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徐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를 위해 헌신한 秦敦勳(60년 文理大卒)교수를 비롯해 朴孝鍾 학과장, 鄭世九·全寅永·李溫竹 교수 등에게 동창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으며, 새해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모교 석사학위를 취득한 명노홍(79년 大學院入)동문 외 11명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洪錫榮(89년卒)·김현수(96년卒)동문에게 학위기념패를 증정했다.

「세단뛰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소식지를 발행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졸업생 중 80~90년대 학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freechal.com/Wanderer)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문 교류가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表>

이동·선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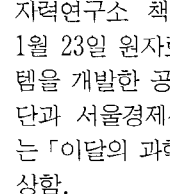
- ▲趙東元(58년 法大卒·민주평
통 자문위원)
=지난 1월 8
일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사
회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국민
훈장 석류장을 받음.
- ▲趙東一(62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2
월 11일 프랑
스 파리 앙테탈
리에 클럽에서
한국 문화를 프
랑스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2002년 한불 문화상을 수상함.
- ▲金炳斗(65년 敎大院卒·前강
원도 교육감)
=지난 2월 11
일 교육인적자
원부 대회의실
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
음.
- ▲孫 郁(67년 工大卒·삼성중
합기술원장)=지난 2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
는 기술경영인상(CTO부문)을
수상함. 또 3월 1일 홀리데이인
서울 무궁화홀에서 3·1문화재단
이 수여하는 제44회 3·1문화상
(기술상)을 받음.
- ▲郭柄善(70년 師大卒·前한국
교육개발원장)
=지난 2월 11
일 교육인적자
원부 대회의실
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
음.
- ▲鄭忠始(76년 工大卒·오마이



코리아 사장·
本會 副會長)
=지난 2월 11
일 노동부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선정돼 「CLEAN 사업장 인정서」를 받음. 또 2002년도 강원환경대상 기업체부문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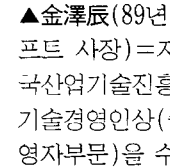
▲李秉澤(79년 工大卒·전남대
교수)=최근 광관련 연구를 통해 광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민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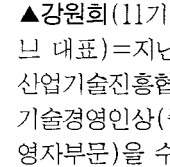
▲金在熙(80년 工大卒·한국원
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지난
1월 23일 원자로 자동탐상 시스
템을 개발한 공로로 한국과학재
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주관하
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
상함.



▲金大植(85년 自然大卒·모교
물리학부 교
수)=최근 과
학기술부와 한
국 과학기술한
림원이 수여하
는 제6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澤辰(89년 工大卒·엔씨소
프트 사장)=지난 2월 12일 한
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
영자부문)을 수상함.



▲강원희(11기 APICP·인터큐
브 대표)=지난 2월 12일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
영자부문)을 수상함.

이동·선임

▲金城完(63년 文理大卒·삼양
사 고문·유타대 석학교수)=최

근 생체고분자 인공장기 연구분
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국
립공학학술원(NAE) 종신회원
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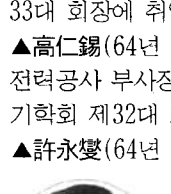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
會長)=지난 2
월 7일 열린
전국경제인연
합회(전경련)
총회에서 제28



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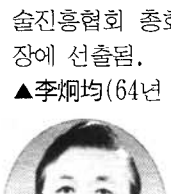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
대 국제대학원
장)=지난 2월
13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열
린 한국경제학
회 총회에서 제



33대 회장에 취임함.

▲高仁錫(64년 工大卒·前한국
전력공사 부사장)=최근 대한전
기학회 제32대 회장에 취임함.

▲許永燮(64년 工大卒·독심자
회장·本會 副
會長)=지난 2
월 12일 삼성
동 인터컨티넨
탈호텔에서 열
린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총회에서 제4대 회
장에 선출됨.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
신문방송인클
럽 회장·본회
부 회장·본 보
논설위원)=지
난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로부터 제35회 한국기자상 및
2003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
원장에 위촉됨.

▲姜哲求(64년 法大卒·광주고
등법원장)=지난 2월 5일 특허
법원장에 임명됨.

▲宋基弘(64년 法大卒·법원 도
서관장)=지난 2월 5일 춘천지
방법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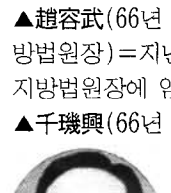
▲曹忠煥(64년 法大卒·한국타



▲李鉉求(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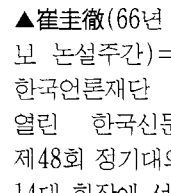
▲崔秉鶴(65년 法大卒·대전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수원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趙容武(66년 法大卒·제주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창원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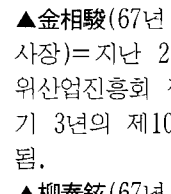
▲千璣興(66년 法大卒·변호사)
=지난 1월 27
일 힐튼호텔에
서 열린 서울지
방변호사회 정
기총회에서 회
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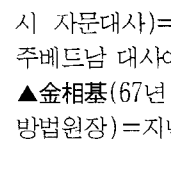
▲崔圭徹(66년 法大卒·동아일
보 논설주간)=지난 1월 2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48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



14대 회장에 선출됨.



▲林昌烈(66년 商大卒·前경기
도지사)=지난
2월 22일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 대표이
사 회장에 선임
됨.



▲金相駿(67년 文理大卒·풍산
사장)=지난 2월 20일 한국방
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임
기 3년의 제10대 회장에 추대
됨.

▲柳泰鉉(67년 文理大卒·대전
시 자문대사)=지난 2월 21일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됨.



▲金相基(67년 法大卒·청주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서울

이어 사장)=
지난 2월 21일
대한타이어공업
협회 정기총회
에서 제22대 회
장에 선임됨.

文理大卒·모교
수리과학부 교
수)=지난 2월
14일 전북 전
주시 상산고등
학교 제7대 교
장에 취임함.

法大卒·대전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수원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法大卒·제주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창원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法大卒·변호사)
=지난 1월 27
일 힐튼호텔에
서 열린 서울지
방변호사회 정
기총회에서 회
장에 선출됨.

法大卒·동아일
보 논설주간)=지난 1월 2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48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

商大卒·前경기
도지사)=지난
2월 22일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 대표이
사 회장에 선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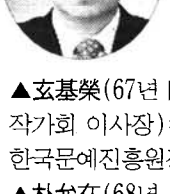
文理大卒·풍산
사장)=지난 2월 20일 한국방
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임
기 3년의 제10대 회장에 추대
됨.

文理大卒·대전
시 자문대사)=지난 2월 21일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됨.

法大卒·청주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서울

행정법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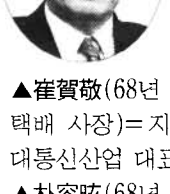
▲洪日杓(67년 法大卒·특허법
원장)=지난 2
월 5일 사법연
수원장에 임명
됨.



▲玄基榮(67년 師大卒·민족문학
작가회 이사장)=지난 2월 17일
한국문예진흥원장에 임명됨.

▲朴允在(68년 文理大卒·송실
대 교수)=지난 2월 22일 한국
유통학회장에 취임함.

▲黃仁行(68년 法大卒·인천지
방법원장)=지
난 2월 5일 서
울가정법원장
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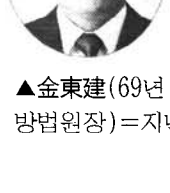
▲崔賀敬(68년 師大卒·前현대
택배 사장)=지난 2월 11일 현
대통신산업 대표이사에 선임됨.

▲朴容炫(68년 醫大卒·모교 병
원 장)=최근
홀리데이인서
울 호텔에서 열
린 한국병원경
영연구원 이사
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됨.

▲李光鎭(68년 醫大卒·충남대
총장)=지난 2
월 15일 공주
대에서 열린 전
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
의에서 임기 1
년의 회장에 선출됨.

▲姜完求(69년 法大卒·서울가
정법원장)=지
난 2월 5일 대
구고등법원장
에 임명됨.



▲金東建(69년 法大卒·수원지
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서울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金在晋(69년 法大卒·울산지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청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됨.

▲金英南(70년 工大卒·前해양수산부 항만국장)=지난 2월 1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龍潭(70년 法大卒·법원행정처 차장)=지난 2월 5일 광주

고등법원장에 임명됨.

▲鄭文秀(70년 法大卒·前주나이지리아 대사)=지난 2월 21일 주카타르 대사에 임명됨.

▲安聖會(70년 法大卒·서울지법 서부지원장)=지난 2월 5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梁承泰(70년 法大卒·부산지법원장)=지난 2월 5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됨.

▲鄭鎬瑛(70년 法大卒·춘천지방법원장)=지난 2월 5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李熙範(71년 工大卒·한국생산성본부 회장)=오는 4월 1일 서울산업대 총장에 취임한다.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2월 19일 기업 윤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

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된 「倫經포럼」 공동위원장에 선출됨.

▲黃榮一(72년 新大院卒·前국동방송 부사장)=최근 기독교TV 부사장에 선임됨.

▲韓松(73년 齒大卒·강릉대교수)=최근 강릉대 제4대 총장에 선출됨.

▲金相潤(77년 社會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지난 2월 21일 주에티오피아 대사에 임명됨.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지난 2월 19일 기업 윤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된 「倫經포럼」 공동위원장에 선출됨.

▲朴在承(40기 AMP·前서울지방변호사회장)=지난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선출됨.

16대 참여정부 첫 내각 발표 高建총리...장관 11명 입각

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高建(60년 文理大卒)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高建총리의 제청 절차를 밟아 27일 「참여 정부」의 첫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金振杓(71년 法大卒)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으며, 통일부 장관에 丁世鉉(71년 文理大卒) 장관이 유임됐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에 尹永寬(75년 文理大卒) 모교 외교학과 교수, 법무부 장관에 康錦實(79년 法大卒)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에 朴虎君(70년 文理大卒)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정보통신부 장관에 陳大濟(74년 工大卒) 삼성전자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金花中(67년 看護大卒)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에 權奇洪(73년 文理大卒) 영남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에 崔鍾璫(72년 商大卒)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발탁했다.

더불어 기획예산처 장관에 朴奉欽(72년 商大卒) 차관, 국무조정실장에 李永鐸(69년 商

大卒·本會 副會長) KTB네트워크 회장을 기용했다.

한편 3월 3일 재정경제부 차관에 金光琳(80년 行大院卒) 특허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趙建植(75년 文理大卒)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외교통상부 차관에 金在燮(68년 文理大卒) 주인도네시아 대사, 과학기술부 차관에 權五甲(75년 工大卒)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차관에 吳志哲(73년 法大卒)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농림부 차관에 金正鎬(72년 工大卒) 차관보, 환경부 차관에 郭決鎬(80년 環大院卒) 기획관리실장, 노동부 차관에 朴吉祥(76년 社會大卒)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여성부 차관에 安載憲(71년 文理大卒) 충북 행정부지사, 건설교통부 차관에 崔在德(74년 師大卒) 차관보, 법제처장에 成光元(70년 師大卒) 차장을 기용했다.

한편 조달청장에 金敬燮(72년 文理大卒)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병무청장에 金斗星(82년 行大院卒) 한국병역정책



高建 국무총리



金振杓 경제부총리

연구소장, 경찰청장에 崔圻文(42기 ACAD) 경찰대학장, 산림청장에 崔鍾秀(75년 環大院卒) 차장, 특허청장에 河東萬(78년 環大院卒)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沈昌求(71년 藥大卒) 모교 제약학과 교수, 철도청장에 金世浩(85년 行大院卒)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장에 金世鉦(83년 行大院卒) 전경찰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卓秉伍(38기 ACAD) 명지대 교수를 각각 발령했다.

청와대 비서진 확정

장·차관급 동문 12명 등용

최근 제16대 「참여 정부」에서 盧武鉉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진이 확정됐다.

장관급인 비서실장에 文喜相(68년 法大卒) 국회의원, 정책실장에 李廷雨(72년 商大卒) 경북대 교수, 국가안보보좌관에 羅鍾一(63년 文理大卒) 주영 대사가 임명됐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수석에 權五奎(75년 商大卒) 조달청장, 정무수석 柳寅泰(74년 文理大卒) 전국회의원, 홍보수석에 李海成(77년 經營大卒) MBC 북경특파원, 국민참여수석에 朴珠賢(85년 法大卒) 변호사를 기용했다.

또 외교보좌관에 潘基文(70년 文理大卒)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국방보좌관에 金熙相(73년 文理大卒) 전국방대 총장, 경제보좌관에 趙潤濟(76년 社會大卒) 서강대 교수, 인

사보좌관에 鄭燦龍(74년 文理大卒) 광주YMCA 사무총장,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金泰由(74년 工大卒)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이로써 장·차관급 13명의 비서진 가운데 민정수석을 제외한 12명이 동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에 申鳳浩(79년 社會大卒) 동문, 지방자치비서관에 朴基煥(77년 經營大卒) 동문,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李錫兌(82년 法大卒) 동문, 법무비서관에 黃德南(80년 法大卒) 동문이 임명됐으며, 국민참여수석실 민원비서관에 梁珉湖(84년 人文大卒) 동문, 국정모니터비서관에 郭海坤(85년 社會大卒) 동문이 내정됐다.

(彙)

행사·출간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공예과 명예교수)=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San Diego City College LRC Hall에서 열린 「韓國陶藝傳統과 變奏」 전시회에 출품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2월 11~21일 갤러리 우덕에서 모교 독어독문학과 高源(73년 文理大卒)교수, 서양화과 徐庸宣(79년 美大卒)·尹東天(85년 美大卒)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머니의 방」이라는 주제로 제2회 특별기획전을 가짐.

▲金濬浩(56년 法大卒·금노八一회 회장)=지난 2월 19일 북창동 「신라다랑원」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 이용득 위원장을 초청, 「조흥은행 매각과 독자발전」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학원 이사장·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이사장·醫大同窓會長·本會 副會長)=지난 2월 6일과 14일 가천길대학과 신명여고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을 격려했으며, 2월 11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지원 사

업계획 등 예산안을 가결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2월 14일 농협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한국초지학회와 공동으로 「수입조사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2월 1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통일·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2월 2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동포 지도자들을 초청,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재외동포정책포럼」을 가짐.

▲李笑雨(64년 看護大卒·모교 간호학과 교수·모교 간호센터 소장)=지난 2월 17~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에서 간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기암환자 통증관리교육」을 실시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本會 副會長)=지난 2월 14일 이광희부띠끄 남산 본사에서 「사랑의 수호천사」 편을 전달받고, 후원행사를 개최함. 또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방글라데

시에서 제34회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이사회를 개최함.

▲孫文子(66년 美大卒·서양화가·내잔갤러리 관장)=지난 2월 15~20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 「ARTSEO-UL」전에 작품을 출품함.

▲李周行(67년 師大卒·중앙대 교수·한국화법학회 회장)=지난 2월 19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교사의 화법」을 주제로 전국 학술대회를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창조학회 이사장)=지난 2월 22일 서울 강북대성학원 강당에서 2003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 회장)=지난 2월 13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우리금융그룹 尹炳哲(3기 AIP) 회장을 초청,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CEO의 역할」을 주제로 제128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환경정책학회 회장)=지난 2월 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정책학회 학술회의를 개최함.

▲金學元(70년 法大卒·자민련 원내총무)=지난 2월 12~15일 訪日외교단장 자격으로 金權泰(72년 商大卒)·朴源弘

(40기 AMP)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 일본측 여야 고위인사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조방안을 모색함.

▲黃龍昇(75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22일 모교 병원내 임상제2강의실에서 간질수술 1천회를 기념하는 제9차 서울 국제간질심포지엄을 개최함.

▲金明坤(76년 師大卒·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문화광장에서 2003년 새봄맞이 해오름 축제를 개최함.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가·모교 감사)=지난 2월 15~24일 미국 이민 백주년 기념으로 뉴욕 로드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아트센터에서 제19회 개인전을 가짐.

▲崔吉大(82년 環大院卒·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지난 2월 21일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제3회 국제사회기반시설 안전세미나를 개최함.

▲朴永大(92년 美大卒·화가)=지난 1월 8~14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그림산문집 「새들이 날아간 자국」 출판기념 개인전을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2월 5~9일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사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를 방문,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중기 도입계약 방안에 대해 협의함.

▲金澈運(33기 AMP·충효예 실



천운동본부 총재)=지난 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립양로원과 마포구 아현

동 노인정을 방문, 「사랑의 떡살 나누기」행사를 개최함.

▲洪貞植(9기 AIP·시민단체 활동단 단장)=지난 2월 12일 일부 연예인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한미병사들에게 노래방 기기를 전달하고 위문공연을 펼침.

▲朴永淳(43기 ACAD·현대시멘트 상임감사)=최근 ACAD 동문 20여 명과 함께 타이페이를 방문, 세

고 대만의 전통 민속과 관광산업에 관련한 현장시찰 및 관광연수를 다녀옴.

▲姜武燮(52기 ACAD·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2월 19일 한국언론재단 대회의실에서 「학력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제15차 정책포럼을 개최함.

(정리=安興燮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조일형(00년 保大院卒)군·이명선 양=3월 15일 15시 30분.
*박철순(94년 社會大卒)군·이성원 양=3월 28일 18시.
*김거원(95년 工大卒)군·모금숙 양=3월 30일 12시 30분.

新刊

■영화와 의학의 만남

—文國鎮 著



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흥미진진한 「그림 읽기」. 오래전부터 미술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해 온 법의학자 文國鎮(55년 醫大卒·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동문은 이 책을 통해 영화를 의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컬러사진과 함께 영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색다

른 책이다. <예담刊>값16,500원

■베토벤의 삶과 음악의 세계

—曹洙哲 著



베토벤의 생애를 조명한 책을 펴냈다.

인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음악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어 왔지만 베토벤만큼 널리 알려진 음악가도 없을 것이다.

그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음악만큼이나 영웅적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은 그의 심성이나 사상의 발달단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컬러 사진과 함께 들여다 보고 또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서울대학교출판부刊>값19,000원

■야생초 편지

—黃大權 著



공동체 연구모임 으뜸지기)동문이 감옥에서 유일한 벗으로

삼았던 야생꽃들에 대한 편지글들을 모았다.

행동의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야생꽃 하나 하나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더불어 즐긴 이야기를 당시 편지에 함께 그려 넣었던, 잎 모양 하나 하나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들과 함께 묶은 책.

단순한 들꽃의 생태, 자연과 생명의 신비 예찬을 넘어 권력의 폭압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인간의 삶과 인간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담겨 있다. <도솔刊>값8,500원

■미국 초등학교 확실히 알고 가자

—沈良燮 著

인터넷 신문 「송알송알」 발행인인 沈良燮(87년 人文大卒)동문이 미국 초등학교의 수업내용과 방식, 교내생활 등을



들이 꼭 읽어야 할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 미국인도 잘 모르는 진짜 미국 초등학교현장의 모든 것을 발로 뛰며 체험으로 기록한 최신 가이드북.

이 책에서는 미국 초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억울한 일이나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의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할 일 등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과사람刊>값16,000원

총망라한 책을 펴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동반유학을 떠나는 학부모

동문의 소리

‘사이버 미래한국’ 건설하자

鄭鎬宣(75년 大學院卒)(사)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본부장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를 20년 하다가 15대 국회의원 소임을 마치고 정치적으로 애국한답시고 교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가 좋고, 교육열이 높고, 각 단체의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장점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인, 한웅, 단군의 자손, 즉 천

孫으로서 9천여 년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젊은 벤처인들이 세계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개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왜곡된 교육을 받아 오면서 단군상의 목을 치는 등, 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간 국민이 돼 버렸다.

이제 우리는 수도를 옮기고 다시 나라를 건국한다는 생각으로 國訓도 만들고 백년대계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

우선 하늘과 지구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天地人의 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전 세계 교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遷都를 고려하고 적어도 천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주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고 유럽연합(EU)과 같은 아시아국가 연합(AU)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사이버 연합회를 결성하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학생 대표로 young cyber 국회(하원)와 NGO 대표들로 사이버 국회(상원)를 결성해 인재 강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까.

이 사이버 지도자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전파해 우리가 주도한 사이버 UN을 결성해서 사이버 세계정부를 만들고 실크로드를 달리며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군대처럼 IT로드를 달리는 젊은 사이버 인재들에게 홍익인

간, 이화세계의 천지인 사상으로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된다면...

이들로 하여금 지구상에서 전쟁과 기아 및 공해를 추방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해 천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게 하고 사이버 상에서 기반을 닦아 시공을 초월한 미래의 한국을 건설한다면 한국은 분명히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다.

「立春大吉」과 IT산업의 만남

全泳蘭(89년 師大卒)당곡중학교 교사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지난 2월 4일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번째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며 예로부터 입춘절기가 시작되면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시작한다. 아낙네들은 집안 곳곳에 쌀인 먼지를 털어 내고, 남정네들은 겨우내 넣어두었던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며 한 해 농사를 대비했다. 소를 보살피고, 재거름을 부지런히 채워두고, 뽕나무 밭에는 오줌을 준다.

겨우내 묵었던 뒹간을 퍼서

인분으로 두엄을 만들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며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 이날 내리는 비는 만물을 소생시킨다 하여 반겼고, 이 때 받아둔 물을 부부가 마시고 동침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소중히 여겼다.

입춘 날 농가에서는 대문이나 집안 기둥에 「立春大吉」, 「建陽多慶」같은立春帖을 써 붙인다. 여기에는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더불어 길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이기도 하다.

입춘을 며칠 앞둔 1월말 가끔 다니던 절에서立春大吉이라 쓰인 입춘첩을 보내왔다. 입춘날 오전 10시까지 절에 와서 정성을 드린 뒤 申時(오후 3시~5시)에, 특히 「오후 3시 5분」에 대문이나 방문 위에 붙이라는 친절할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입춘날이 되자 출근하는 남편에게 입춘첩을 주면서 오후 3시 5분을 강조하며 사무실 출입구 위에 꼭 붙이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IT산업에 종사하는 남편

은 나의 강요(?)에 못 이겨 직원들에게 「내가 사무실에 없더라도 꼭 시간 맞춰 붙여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에 직원들은 21세기에 더구나 첨단 IT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느냐며 불멘소리를 하면서도,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붙이기 위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정확히 오후 3시 4분 30초에 풀칠을 시작해 5분에 붙였다고 퇴근한 남편이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입춘첩에 그려진 그림이 뭔가 부적을 연상시켜 그런 말이 나

왔으리라 생각이 됐다. 하지만 꼭 미신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운이 우리 집과 남편의 사무실 뿐 아니라 온 나라에 가득해 힘차고 신나는 계미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e-비즈니스 시대의 斷想

丁得鎭(53기 ACAD)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는 정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듯이 20세기 후반 디지털 혁명으로 촉발된 인터넷 대중화시대는 모든 경제생활과 기업활동이 전자화, 정보화되는 e-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래 지난 50여 년간 「먹고사는」 일에 내몰리다보니 성장 제일주의의 思考가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삶의 질이나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1백2개 대상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우리 나라의 경제와 교역규모와 비교해 볼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사회 투명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대략 추산하여 정부의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다고 하니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도 IT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확충되면서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관련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어 희망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결제수단의 전

자화와 거래기록의 투명성을 가져오고 이는 자연스레 경제구조의 건전화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시대의 국가정책도 양에서 질로 선화하고 있고 산업정책의 중심에 IT산업 등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이 자리잡아 가고 있어 탈세나 지하경제의 퇴치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모교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활짝 공개된 인터넷 시대에는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간 우리 동문들이 쌓아 온 업적과 명성이 어느 순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건학 이래 줄곧 지켜져 온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校訓도 이제 21세기의 역동성 있는 e-비즈니스 시대를 맞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최고 가치가 「진리」였다고 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가치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정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의 활용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e-비즈니스 시대에 맞게 모교의 校訓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모토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20세기 국내 최고의 지성을 지킨 동문들의 분발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모교가 명실공히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